

제8기

직무발명 역량을 갖춘 예비 기술전문가 양성사업

IP Meister Program

5.14(월) ▶ 6.15(금) 오후 6시까지

참가자격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재학생 2~3명 팀 구성 참여

* 상세설명은 공고문 참고

선발특전

- 발명·지식재산권 교육 및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 부총리겸교육부장관상 및 선진국외연수
- 교육 수료증 수여
- 기술이전 상담·지원
- 우수학교 단체상 시상 등

신청방법

온라인,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중 선택

- 온라인 접수 : 발명교육포털사이트(ip-edu.net)를 통해 접수
- 우 편 제 출 : 신청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 E-Mail 제출 : ipmp@kipa.org

문의처

02-3459-2749 / ipmp@kipa.org

* 세부사항은 발명교육포털사이트(www.ip-edu.net),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 참조



IP Meister(마이스터) Program이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이 팀을 구성하여 기업이 제안한 과제, 또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한 과제에 대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선정된 아이디어에 대해 변리·기술전문가 멘토와 함께 지식재산 권리화 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을 종합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특별기획_대한민국 선생님을 키웁니다



Vol. 430. 2018. 5.

특별기획_대한민국 선생님을 키웁니다
이슈 I_4·27 남북정상회담, 하늘로 날아오르는 평화의 꿈

CONTENTS

May 2018 Vol. 430

• 본지에 수록된 기사·사진·일러스트의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duzine21@gmail.com)
• 본지에 수록된 외부 필자의 원고는 교육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02 특별기획 대한민국 선생님을 키웁니다

- 04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교사상
- 06 “우리는 예비교사입니다”_ 대구교대
- 10 교생실습 후기_ 내가 꿈꾸는 선생님
- 12 미래를 대비하는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

15 세계의 교육 변화

핀란드의 교사 양성과 신규채용 제도 혁신 사례



현장이야기

- 18 **지금! 혁신교육** 빛고을혁신학교_ 광주동산초등학교 협력과 소통으로 '함께' 성장하는 학교
- 22 **내 마음의 선생님** 선생님의 교훈
- 24 **이런 수업 어때요** 강주희 교사의 지속가능발전교육
- 28 **아하! 진로체험** 미래 자동차 학교
- 32 **클로즈업** 놀 줄 아는 어린이로!
- 34 **나눔 실천하는 사람들** 세상을 아름답게! 나눔으로 여는 교육
어버이날, 효(孝)사랑 봉사활동으로
함박웃음 선물
- 36 **명예기자 리포트** 32년 후 딸이 부르는 스승의 노래 외

정책이야기

- 40 **정책N전망** 학교와 사회의 불화 그리고 우리의 미래
- 42 **정책카툰** 학교 노후시설 개선
- 44 **김상곤의 행복한 교육편지** 투사와 시인과 화가
- 46 **이슈 I** 4·27 남북정상회담, 하늘로 날아오르는 평화의 꿈
- 49 **이슈 II** 자본주의의 참뜻을 실천에 옮기는 방송국
- 50 **이슈 III** 교육 혁신을 넘어 문화운동으로
- 52 **이슈 IV** 학생 참여 중심의 '프로젝트 수업' 현장을 가다
- 55 **꽃 피는 교육자치** 인천/강원/대전/부산/광주/세종/전남



정보이야기

- 59 **대학교육** 대학에서 '융합 교육' 제대로 하기
- 62 **교육 썰전** 수습교사제
- 62 수습교사제 다시보기
- 64 또 다른 임용고사로서 수습교사제
- 66 **학급운영노트** 보상과 벌, 학급에 꼭 필요할까요?
- 68 **아이의 다락방** 부모와 갈등을 겪는 선영이
- 70 **이야기 인문학** 5월의 광주, 민주주의에 봄이 오다
- 72 **일상의 썬표** 고창이 부쳐온 푸른 손편지
- 76 **뉴스브리핑**
- 79 **행복 게시판**

표지이야기

어린 도시농부들이 학교 텃밭에서 유기농 작물을 길러보고 수확하는 활동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있는 활동이며 지구를 지키는 약속이 아닐까? 강주희 서울신곡초 교사는 학교 화단을 텃밭으로 조성해 1학년 학생들과 생태교육을 하고 있다. 방울토마토에서는 어떤 냄새가 날까? 아이들이 생김새를 관찰하기도 하고 냄새를 맡아가며 고사리 손으로 방울토마토, 고추 모종을 텃밭에 옮겨 심는다. 실수로 휘어질까 부러질까 손놀림이 조심스럽다.

특별
기획

- 1.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교사상
- 2. "우리는 예비교사입니다"_대구교대
- 3. 교생실습 후기_내가 꿈꾸는 선생님
- 4. 미래를 대비하는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교사상

학생들의 장래 희망 직업 1순위가 교사이다. 10년이 넘도록 이런 경향이 변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자를 기준으로 매우 우수한 인력이 교사양성대학을 지망한다. 교사 부족 현상에 시달리는 선진국의 많은 나라와 너무 다른 상황이다.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할 만하다. 그러나 마냥 좋아할 입장은 못 된다.

이 글을 쓰기 얼마 전 어느 사범대학을 방문했더니 1층이 모두 임용교사 준비실이였다. 밤새워 공부하는 열기가 느껴졌다. 이런 풍경화가 종합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명료하다. 중등학교부터 대학까지 경쟁적인 입시 문화를 견뎌내야 비로소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우수한 인력이 힘겨운 경쟁을 통해서 교사가 되는 현실은 일견 한국 교사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증표로 보인다. 적어도 한국의 학교에서는 교사가 실력이 없어서 잘못 가르칠 가능성은 외국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

그러나 이런 밝은 면 뒤에는 함께 고민해야 할 위태로운도 존재한다. 교사들은 대부분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던 사람들이다. 그 때문에 공부가 어렵고 학교에 부적응하는 학생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위험성이 크다. 좋은 대학 합격을 지상 목표로 생각하는 중·고등학교 문화 속에서 차별적인 혜택을 더 많이 받았을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깊은 성찰이 없으면 정의롭지 못한 학교의 관습을 당연시할 수 있다. 대학 교육 못지않게 사교육 스타 강사나 노량진 입시 학원의 세례를 받고 교사가 되는 것도 문제이다. 새로운 사회가 요구하는 학생 참여형 수업에 노출되고 이를 훈련할 기회가 부족하다. 그런가 하면 자신은 가장 안정적인 직업군에 속



해 있으면서 21세기의 변화무쌍한 사회 속을 항해할 학생들을 교육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놓여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연배가 있는 교사들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이다.

배우지 않았던 방식으로 가르칠 수 있는 능력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필자는 오늘날 교사들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은 “자신이 배운 대로 가르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본다. 미국의 교육학자 하그리브

스도 “자신이 배우지 않았던 방식으로 가르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21세기 교사에게 필요한 전문성 요소로 열거한 바가 있다. 이 추상적인 언명에 필자 나름으로 구체성의 옷을 입히자면 다음과 같다. 오늘날의 교사는 우등생에게 더 친절한 학교를 넘어서서 모든 학생들이 존중받고 온전한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학교를 창조해야 한다. EBS 문제와 다섯 개의 좁은 선택지에 가두는 교육을 넘어서 자유롭게 상상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창의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을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세상이 온통 위험하니 안정적인 직업을 찾아야 한다며 공포를 설파하는 대신에 학생들이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모험을 감행할 수 있는 존재로 성장하도록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

자신이 배운 대로 가르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의 밑바탕에는 끊임없는 학습 능력이 전제되어 있다. 21세기 교사의 존재론적 본질은 가르침의 탁월성이 아니라 배움의 진정성과 지속성에 있다. 이전에 배운 것이 새로운 학습을 방해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문제시되는 역사의 현 시점에서 개별 교사는 매일 껌질을 벗고 다시 태어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물론, 그런 배움은 당연히 동료 교사들과 함께 가꾸는 실천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야 한다. 한국의 교사 문화가 고립적이고 개인주의적임은 여러 연구가 지적해 온 바이다. 다행히 지난 10여 년 동안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학교 혁신의 물결로 인해서 동료성이 서서히 구축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낙관하기는 이르다. 이질성과 다원성이 강화되고 있는 오늘날의 교사 공동체가 어떻게 지속 가능한지를 자문해 본다. 오직 한 가지 답만 떠오른다. 자신의 부족함을 자각하고 배우겠다는

오늘날 교사들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은 “자신이 배운 대로 가르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동기를 공유하는 것! 그것만이 오늘날 교사 공동체를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게 만드는 공통성의 토대가 아닐까 한다.

학교 울타리를 넘어서 좋은 사회 사유

마지막으로 이 시대의 교사는 좁은 학교 울타리를 넘어서 좋은 사회를 사유해야 한다. 교사의 실천은 좋은 사회에 대한 전망, 상상, 책무성과 분리될 수 없다. 인간 존중, 평등, 배려, 사회정의, 공공성 등은 교사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사회적 가치이다. 교사는 자신의 교육적 실천이 이런 가치에 튼튼한 닻을 내리고 있는지 자문해야 한다.

필자는 교사의 사회적 책무를 생각할 때마다 교사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 제 31조가 생각난다. 왜 많고 많은 직업 중에 교원의 지위가 헌법 사항일까? 교사들이야말로 민주공화국의 시민을 양성하는 공적 책무를 안고 있는 신성한(?) 직업이기 때문이 아닐까? 그 점에서 교권을 온전히 세우는 것은 옛 스승의 향수를 복원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공화국의 교사로서 공적 책무를 자신의 교육 실천과 끊임없이 결합시킬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㉞

미래를 대비하는 중장기('19~'30년) 교원수급 계획 국가차원의 안정적인 교원수급 관리 토대 마련

2030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초등학교는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으로, 중·고교는 그보다 더 낮은 수준이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4월 30일 교원 '임용절벽' 논란에 대한 대책으로 내년부터 향후 2030년까지의 초·중등 교사 신규 채용규모가 담긴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을 내놨다.

범정부 TF 구성, 교원수급 대책 마련

이번 수급계획은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교원수급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실수업 혁신을 위해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교원수급의 관리를 위해 이뤄졌다. 이번 중장기 수급계획은 교육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교원수급 관련 부처가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합의를 도출하고 10년 이상을 내다보며 마련한 최초의 계획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역대 정부에서도 교원 중장기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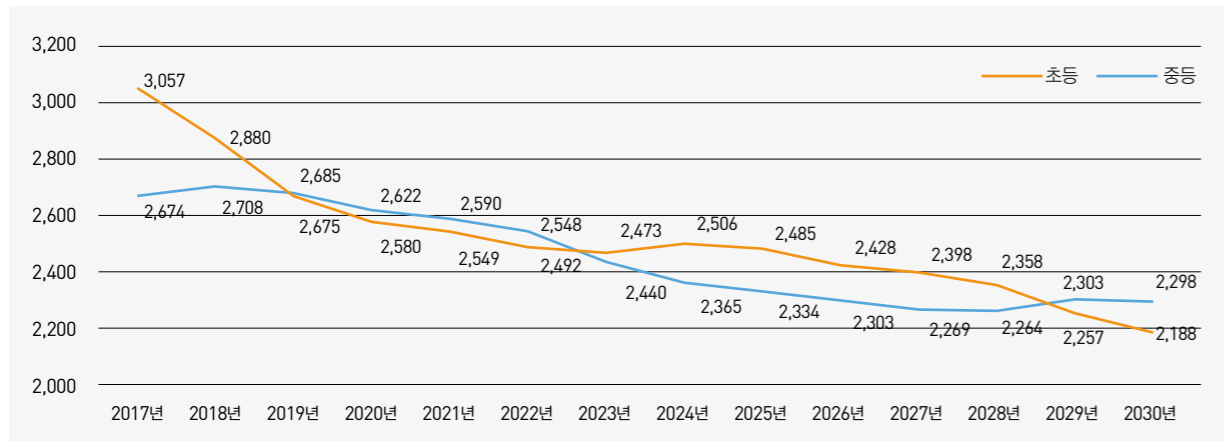
급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나, 교육부 내부 계획으로만 수립·활용되어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낮고, 정교한 채용규모 예측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지난해 8월 서울시 초등교원 임용대란 또한 장기적인 목표와 계획 없이 교원수급 관련 주체가 분절적인 의사결정을 하였던 것이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계획 수립은 국가차원에서 장기적, 안정적인 교원수급 관리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원수급 방안

2019~2030년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초·중등 학생 수는 '30년까지 '18년에 비해 110만 명(19.7%)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초등 학생 수는 41만 명(15%), 중등 학생 수는 69만 명(24%)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표 1 참조>.

[표 1] 2018~2030 학생 수 예측 내역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이를 바탕으로 최근 5년간 진학·취학을 등을 반영하여 '30년까지 초·중등 전체 학생 수 산출

이번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은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 조성을 통해 교실수업 혁신을 지원하고, 신규채용 규모의 안정화를 통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퇴직 교원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이 시작되는 '21년(8,610명)부터 점차 증가하다가 '25년(12,740명) 이후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수급계획의 중점목표는 교실수업혁신을 위하여 '정부 임기 내('22년)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국가 평균('15년 기준)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고 매년 신규 채용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연차별 증감규모를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공립 초·중등학교 교과교사를 대상으로 하며, 유치원·특수·비교과교사(보건, 영양, 사서, 전문상담교사)는 지난해 발표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과 연계하여 충원한다<표 2 참조>.

[표 2] 교사 1인당 학생 수(OECD 평균/우리나라)

구분	OECD 교사 1인당 학생 수		우리나라 교사 1인당 학생 수	
	2010년	2015년	2010년	2015년
초등학교	15.9명	15.2명	21.1명	16.8명
중학교	13.7명	13.0명	19.7명	15.7명
고등학교	13.8명	13.1명	16.5명	14.1명

교원수급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이번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의 주안점은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 조성을 통해 교실수업 혁신을 지원하고, 신규채용 규모의 안정화를 통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교육부는 초등교원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22년에 OECD 평균 수준인 15.2명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19년 4,040명(최대)에서 '30년에 3,500명(최대) 수준으로 신규채용 규모를 안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표 3 참조>.

중등교원은 '18년에 OECD 국가 평균 교사 1인당 학생 수

인 13.1명에 도달한다. 이에 고교학점제, 중학생 자유학년제 등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OECD 국가평균보다 개선된 수준인 11명대로 유지하고, '19년 4,460명(최대)에서 '30년 3,000명(최대) 수준으로 신규채용 규모를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에 OECD 국가 평균 교사 1인당 학생 수 또한 점진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목표치도 중·장기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였다<표 4 참조>.

학령인구 급감, 중장기 신규채용 규모 제시

정부는 교원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먼저,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법정 계획화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되면 매년 예측치를 현행화하는 연동계획으로 운영하고 5년 주기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새롭게 수립할 계획이다.

중장기 신규채용 규모, 지역별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육의 질이 낮은 교원양성기관의 정원을 감축하고,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양성체제 개편에 대해 현장의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10년간의 교원양성기관 평가, 교직과정 정원조정, 대학 자율조정을 통해 초등은 29%('08 5,408명→'18 3,847명), 중등은 45%('08 44,384명→'18 24,395명)가량 양성규모를 감축한다.

아울러, 학생선택권 확대 및 소규모 학교와 교과 증가에 대비하여 복수 및 부전공 활성화를 포함한 교·사대 교육과정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 간 초등교원 수급격차 완화를 위해 현재 도(道) 지역 교원 확보를 위해 시행 중인 교

육감 추천 장학생 제도, 교대 지방인재 전형 제도를 활성화 하며, '19학년도 교원임용시험부터 교대 지역가산점을 상향 조정하고, 국회와 협력하여 현직 교원의 임용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교원수급 계획은 초·중등 학생들에게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을 제공하고, 중장기 신규채용 규모를 제시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원수급 관리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으며, 학령인구 급감에 맞춰 교원 또한 감축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과 이번 계획 수립 이전에 입

학한 교·사대생의 신뢰이익 보호 필요성을 동시에 충족하고자 하였다고 밝혔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수급계획은 교실 수업 혁신 지원과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연착륙 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2030년까지의 학생 수 감소 추계를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선발인원을 축소하고, 교·사대 등 양성기관에 대해 자구책 마련 등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대 진학 준비 중·고교생에게 예고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㉞

【표 3】 초등교원 수급계획('19~'30년)

초등	'18 (완료)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학생 수 (천명)	2,659	2,637	2,575	2,544	2,502	2,396	2,323	2,292	2,262	2,228	2,224	2,263	2,258
교사 1인당 학생 수	16.4	16.2 ~16.1	15.7 ~15.6	15.5 ~15.4	15.3 ~15.2	14.8 ~14.7	14.5 ~14.3	14.5 ~14.3	14.5 ~14.3	14.5 ~14.3	14.6 ~14.4	15.0 ~14.8	15.3 ~14.9
신규채용	4,088	3,940 ~4,040	3,910 ~4,010	3,880 ~3,980	3,830 ~3,930	3,750 ~3,900	3,600 ~3,900	3,500 ~3,800	3,400 ~3,800	3,300 ~3,700	3,200 ~3,600	3,100 ~3,500	3,100 ~3,500

※ 교육청 수급여건, 매년 연동계획 수립에 따라 신규 채용규모는 일부 조정될 수 있음

【표 4】 중등교원 수급계획('19~'30년)

초등	'18 (완료)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학생 수 (천명)	1,943	1,820	1,773	1,764	1,732	1,716	1,740	1,726	1,687	1,660	1,630	1,554	1,508
교사 1인당 학생 수	12.1	11.3 ~11.1	11.1 ~11.0	11.1 ~11.0	11.1 ~11.0	11.1 ~11.0	11.4 ~11.2	11.7 ~11.5	11.7 ~11.5	11.8 ~11.6	11.9 ~11.6	11.6 ~11.3	11.5 ~11.2
신규채용	4,468	4,310 ~4,460	4,300 ~4,450	4,290 ~4,440	4,270 ~4,410	4,050 ~4,250	3,800 ~4,200	3,600 ~3,900	3,400 ~3,800	3,100 ~3,400	2,900 ~3,300	2,800 ~3,100	2,600 ~3,000

※ 교육청 수급여건, 매년 연동계획 수립에 따라 신규 채용규모는 일부 조정될 수 있음



핀란드의 교사 양성과 신규채용 제도 혁신 사례

교사 양성과 신규채용은 교사로서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함양시키고 학교 조직 외부에 있던 인재를 내부로 유입하는 그야말로 우수 교원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도를 형성한다.

교육에 관한 한 그 수준과 품질이 세계 최고라고 일컬어지는 핀란드의 교원 양성 및 신규채용 혁신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최근의 혁신 트렌드를 이해하고 대안 탐색을 위한 논의를 전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핀란드 교사 양성체제의 변화

오늘날 교육 선진국 최고의 반열에 오른 핀란드의 성취는 끊임없는 혁신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핀란드의 본격적인 교육 혁신은 멀리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핀란드는 학생들의 진로를 초등학교 4학년을 기점으로 대학 진학과 취업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던 전통과 결별하고 종합학교 모델(comprehensive school model)을 토대로 모든 학생들에게 9년간의 무상교육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 수준의 개혁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였다.

그 일환으로 초·중등 교사 양성 체제도 전면적으로 개편

된다. 1~3년 연한으로 주로 소규모 단과대학에서 담당하던 초등교사 양성기능은 1973년까지 모두 종합대학으로, 그리고 1979년부터는 대학원 수준으로 상향 이동되었다. 중등교사 또한, 과거 대부분 학사학위 수준에서 전공을 이수한 후 1년 연한의 교육실습을 거쳐 배출되었는데, 1979년에 모두 석사학위 수준으로 개편되었다. 핀란드의 교원양성기관 개혁은 중앙집권적이고 총체적인 고등교육기관 개혁과 맥을 같이하면서 단행되었고 그 결과 초등과 중등 교사 모두가 종합대학에서 석사학위 수준으로 길러지는 체제가 완성된다.

핀란드 교사양성 방식

핀란드의 교사양성 방식은 80년대 이후부터는 대학들의 자율화 요구에 따라 교육과정 구성이나 교육 내용 등에서 자율권을 갖게 되었으며, 현재는 각 대학 나름의 철학과 교육여건을 바탕으로 교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핀란드 교사양성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초등과 중등의 통합 양성, 연구에 기반한 교사 교육, 이론과 현장 실천의 조화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핀란드는 교사의 전문성 개념이 가르칠 내용(이론)뿐만 아니라 실제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법 및 현장 맥락에 대해서도 잘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실천)는 철학을 토대로 교사들의 연구 역량 함양을 중요시한다.

첫째, 종합대학에서 초등교사와 중등교사를 통합 양성한다. 2017년 현재 핀란드에 설치된 14개 종합대학교 가운데 11개 대학에서 초·중등 교사를 양성하고 있다. 그 방식은 종합대학 내에 같이 설치되어 있는 여러 단과대학들과 교육대학이 긴밀하게 협업하면서 대학 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가령, 헬싱키대학을 예로 들면, 교육대학(Faculty of Education)은 총 11개 단과대학 가운데 하나로, 전체 24개 학과 가운데 교사교육학과와 교육학과라는 2개 학과가 이 단과대학에 소속되어 있다. 교사교육학과(Department of Teacher Education)는 교사양성을 실제 책임지는 주관 기관으로, 초등, 중등, 기술, 가정, 유아, 특수 교사를 양성하는 총 6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학과(Department of Education)는 교육을 학문적으로 탐구하는 학과로서 교육철학, 교육사회학, 교육심리학 등 교육학의 세부 영역들을 다룬다.

비록 초등과 중등 프로그램이 통합 운영되지만 입학 경로와 학생 관리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초등교사 지원자들은 처음부터 교육대학 소속으로 교사교육학과로 입학하여 여기서 교육학과 교직과목을 배우고 교과내용학 관련 과목들은 다른 단과대학에 가서 배운다. 반면, 중등교사 지원자들은 각자의 전공에 따라 일반 단과대학의 학과에 입학하여 여기서 교과내용학을 공부하고 교육대학에서 교직학을 공부하게 된다.

둘째, 연구에 기반한 교사교육 모형 채택하고 있다. 핀란드의 교사양성은 '연구기반 교사교육(research-based teacher education) 모형으로 특화되어 있을 만큼 이론과 현장 실천

간의 조화에 역점을 둔 연구를 강조한다. 교사 양성에 있어서 이론과 실천의 괴리는 전 세계의 고민거리이다. 핀란드는 교사의 전문성 개념이 가르칠 내용(이론)뿐만 아니라 실제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법 및 현장 맥락에 대해서도 잘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실천)는 철학을 토대로 교사들의 연구 역량 함양을 중요시한다.

셋째, 교사훈련학교 교육실습을 통한 교사들의 교실 준비를 극대화하고 있다. 핀란드에서 교사양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대학은 교육실습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교사훈련학교(Teacher Training School)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교대 및 사대 부속학교와 같은 형태이지만 대학과의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교육실습을 철저하게 운영함으로써 예비교사들의 준비도와 현장 적응도를 최대한 끌어올린다.

교사훈련학교 재직 교사들은 교육실습 지도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자체 연수 및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전문성을 끊임없이 높여 가고 있다. 선발된 예비교사들의 수준이 높은 만큼 이들의 자부심도 대단하다. 핀란드에서 교육실습은 동료 예비교사, 지도교사, 학생 등과 상호작용 및 협력을 배워 나가는 풀타임 과정으로 간주되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며 교실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준비도 높은 교사를 양성하는 데 기여한다.

핀란드의 교사 채용 방식

핀란드에서 초·중등 교사의 채용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장한다. 해당 지자체 내의 학교에 교사 결원이 생기거나 채용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각 지자체의 교육위원회(education committee)에서 선발 과목과 채용 예정 교사 수를 결정하고 채용 공고를 내는 것으로 시작하여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한다.

교사 채용 공고의 경우, 일간신문이나 교사전문 신문이나 잡지 등에 기본적인 자격 기준이나 요건들을 공지한다. 지원자는 교사 채용 공고문에 명시된 지원서, 대학 학위 증명서, 이력서, 자신의 교육활동이나 경험을 보여줄 수 있는 포트폴리오 등을 제출한다. 1차 서류전형의 경우, 각 지자체 교육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자체적으로 정한 약 5~7 가지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제출된 서류 및 자료들을 평가하고, 채용 인원의 3배수를 순위를 정하여 선발한다. 2차 면접은 1차 서류전형을 통해 선발된 인원을 대상으로 하여 면접관들이 지원 동기, 경험, 교사로서의 역할 수행 계획 등을 다각도로 질문한다. 이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질문 및 확인 사항은 교사로서의 철학, 교사로서의 경험,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서 표출되는 교육관 등이다.

핀란드는 신규교사 채용과정에서 특히 면접전형에 역점을 둔다. 이때 교사로서 자신의 특징과 장점을 드러내주는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포트폴리오에는 그동안 자신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교사가 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했는지, 어떤 교육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교수방법을 개발시켜 왔는지 등을 확인시켜주는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채용방식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학교의 필요에 부응하는 교사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론과 실천력을 겸비한 준비된 교사

지난 20년간 핀란드의 교사 양성 모형은 자국 내 비판가들로부터 적지 않은 도전을 받았으며 1990년대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는 종합대학에서 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를 따지거나 교사 자격을 석사 수준에서 더 낮춰야 한다는 압력도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학생들의 성취 수준과 이를 뒷받침하는 우수한 교사들은 핀란드의 교사 양성 모형을 전 세계가 바라보도록 하는 동인이 되기에 충분하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혁신을 토대로 이론과 실천력을 겸비한 준비된 교사를 양성, 이용하는 핀란드의 사례는 우리나라의 제도 개선 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7



김이경
중앙대 교수

김이경 교수는 중앙대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한국 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을 비롯해 유네스코 컨설턴트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비교교육학 접근과 방법』(교육과학사), 『학교 리더십의 이론과 실제: 성공적 리더를 위한 지침서』(아카데미프레스)가 있으며, 세계 각국의 교원양성체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아일랜드 교원양성체제 재구조화 사례 분석 및 시사점』(비교교육연구), 『한국과 중국의 사범대학 평가제도 비교 분석』(비교교육연구), 『2015개정 교육과정 실행 및 교원 정책의 대응』(한국교원교육연구) 등을 연구하였다.

빛고을혁신학교_ 광주동산초등학교 협력과 소통으로 ‘함께’ 성장하는 학교

올해로 혁신학교 8년차에 접어든 동산초의 혁신모델은 광주 빛고을혁신학교가 추구하는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교육공동체’ 그 자체이다. 배움이 즐겁고, 학생이 행복하며, 교사가 성장하고, 학부모가 신뢰하는 바로 그런 학교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완성한 마을지도

‘여기는 세상에서 하나뿐인 우리 동네예요. 우리 동네에는 참 많은 것들이 있어요. 지산동의 옛날 이름은 ‘지막리’라고 불렀대요. 무등산과 푸른 길이 가까이 있어서 아주 살기 좋은 동네예요. 지산유원지, 단사공원, 오지호기도 있어요.’

어슬렁 어슬렁 동네마실 가볼까?

광주동산초(교장 윤숙자) 2학년 아이들이 마을을 관찰하고 기록하여 지도로 완성한 지산동의 이야기를 담은 『어슬렁 어슬렁 동네마실 가자!』의 소개 글이다. 지산동 마을지도를 펼쳐놓고 찬찬히 살펴보자니, 마을의 문화재를 비롯해 학교 앞의 법원, 제가 다녔던 유치원, 엄마와 함께 가본 적이 있는 미용실, 우리 동네 꽃집, 한의원 등 마을 곳곳을 잔 걸음으로 돌아다니며 구슬땀을 흘렸을 아이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녹취’라는 말을 처음 알게 됐다는 한 아이는 “녹취사무소 인터뷰를 하고 나서 학교 근처에 녹취사무소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자주 다니던 길인데 왜 그동안 안보였을까?”라고 스스로에게 질문도 던진다. 녹취사무소는 법원이 위치한 지산동만의 특징일터. 마을 곳곳을 알고 있는 ‘엄마 선생님’의 도움으로 인터뷰를 마친 아이들이 지산동의 마을지도로 완성할 수 있었다.

협력과 소통을 통한 학생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동산초의 교사·학부모 간의 협력수업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동산초는 학급에서 발생하는 행정업무는 교감, 부장교사, 교무실무사가 전담하고 있어 담임교사는 학년 교육 과정에 집중할 수 있다. 동산초의 학부모는 학년 교육과정을 ‘도와주는 존재’를 넘어서 ‘함께 만들어가는 존재’로 학부모의 협력수업을 통해 보다 다양한 교육적 시도가 가능하다.

교사-학부모가 함께 하는 협력수업

학교는 학부모와의 혁신의 방향과 가치를 공유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다양한 모임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학급대표, 학년대표를 비롯해, 모임의 특성과 역할에 따라 학부모 동아리, 교사·학부모 협의체(자주트임터), 학부모 독서회 등 다양하다. 2013년부터 시작된 자주트임터는

월 1회 학부모와 교사들이 만나 안건을 협의한다. 학년별로 모이는 교사·학부모 한자리 모임은 학기당 최소 1회 이상 자율적으로 운영되어 학년 교육과정과 생활교육,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윤숙자 교장은 “동산초는 교사와 학부모가 터놓고 이야기하는 소통의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며 “학교 교육활동을 도와주는 수준을 넘어서 교육과정을 함께 고민하며 협력수업을 해오고 있다.”고 소개한다.

대표적인 협력수업으로 동산초의 학교 숲 활용교육을 꼽을 수 있다. 2015년에 교내에 숲이 조성되면서 숲 활용교육을 위해 학부모들이 팔을 걷고 나섰다. 학부모들은 숲 해설사 입문과정을 시작으로 학교 숲 알기, 학교 텃밭 연수 등을 통해 학교 숲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었다. 숲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숲 식물도감을 만들어 공부하고 수업이 있을 땐 미리 숲을 찾아 생태계의 변화를 사전에 꼼꼼하게 살펴 수업에 반영하고 있다.

이기남(교육혁신) 교사는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뤄지면서 선생님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수업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한다. 깃대봉 일대에서 봄나물을 캐보고 관찰하는 협력수업을 진행할 때,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위해 깃대봉 정상에서 봄나물 잔치를 열었다. 깃대봉에 서식하는 봄나물로 만든 밀반찬을 먹으며 아이들은 봄나물에 대한 즐거운 추억을 얻게 되었다.

텐트 속에서 싹트는 사랑

동산초에는 매주 수요일 2시경 ‘읽기 놀이터’ 문을 연다. 학습이 뒤쳐지는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또 하나의 학습놀이터이다. 이곳은 단순히 책만 읽는 곳이 아니다. 학부모와 학생이 1대 1로 짝을 이뤄 텐트 안에서 함께 책을 읽으며 감정을 교류한다. 학습이 뒤쳐지는 아이들이 놀이처럼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한 특별한 곳이다.

평화를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작은 학교 모임에서 『학교 속의 문맹자들』이라는 책을 함께 읽었고 동산초에 이런 아이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돌봐주어야겠다는 마음으로 학



부모들이 학교에 먼저 건의했는데 적극 반영이 되었다.

첫해, 3명의 아이들과 도서관에서 시작된 읽기 놀이터. 임혜영 학부모 회장은 “가정에서 돌봄이 부족하고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라보니 딱 트인 공간에서 위축되는 모습이 엿보였다. 방처럼 아늑한 곳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학교에 텐트를 제안했더니 도서관 한쪽에 마련해 주었다. 그 곳에서 아이들과 책도 읽고 간식도 먹고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고 말한다.

올해에는 6명의 아이들이 ‘엄마 선생님’을 만나러 매주 이곳에 들른다. 학습, 대인관계에서 서툴기만 하던 아이들이 엄마 선생님을 만나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재미에 한 주 한 주 견디다보니 어느덧 3년이 되었다.

배영민 교감은 “학부모들의 노력으로 학생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학교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고 말한다. 학부모의 참여는 ‘나의 아이’에서 ‘우리 모두의 아이’로 시선을 넓혀 나가는 과정이며,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하는 또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이다.

아이들의 자치활동 ‘알뜰장터’

협력과 소통을 통한 학생 중심 교육과정은 학생 자치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학생들 스스로가 학생회 운영의 주체가 되어 학교 행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기자 일행이 학교를 방문한 4월 18일에 체육관에서 ‘알뜰장터’가 열렸다. 학생회가 한 달 전부터 알뜰장터를 기획하고 각 학급에 들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홍보한 결과 40여 팀이 참여하였다. 학생회에서는 알뜰장터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챙기고, 학교에 쌓여있는 분실물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부스도 운영했다.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교사들도 기부물품을 모아 알뜰장터에 나왔다. 각종 학용품에서부터 장난감, 책, 작아서 입을 수 없는 옷, 새것이지만 나에게서는 필요없는 물품들이 체육관을 가득 메웠다.

방과 후 알뜰장터에 참여한 학생들의 손길이 분주해졌다. 물품 진열이 끝난 친구들을 모아 놓고 학생회장은 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알뜰장터가 끝나면 남은 물건을

잘 챙기고 뒷정리를 잘 해 줄 것과 수익금의 30%는 불우이웃을 위해 기부할 것을 당부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최지형 학생회장은 “동산초 친구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너무 비싼 물건이나 위험한 물건은 판매할 수 없어요. 딱지류는 판매할 수는 있지만 다시 따는 건 금지예요. 그리고 수익금의 일부는 기부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알뜰장터의 기준을 조목조목 설명한다. 남이 쓰던 물건이라고 사러오는 사람이 적으면 어떡하나 내심 걱정했다는 학생회장은 인산인해를 이룬 행사장을 둘러보며 “피켓을 만들고 조를 짜서 아침시간에 홍보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보람이 있는 것 같다.”며 “지난해보다 참여한 사람도 물건을 사러온 사람도 많아 뿌듯하다.”고 설명한다.

학생도 선생님도 학부모도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걸까? 이기남(교육혁신) 교사는 “동산

초는 존중의 큰 틀 안에서 움직인다. 학교 관리자는 선생님들을 존중하고, 선생님은 학부모, 학생들을 존중한다. 존중과 신뢰가 서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그 바탕 위에서 협력과 소통이 이뤄지면서 지금의 학교문화를 만들 수 있었다.”고 말한다.

올해로 혁신학교 8년차에 접어든 동산초의 혁신모델은 광주 빛고을혁신학교가 추구하는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교육공동체’ 그 자체이다. 배움이 즐겁고, 학생이 행복하며, 교사가 성장하고, 학부모가 신뢰하는 바로 그런 학교이기 때문이다. ②



1. 녹음이 우거진 동산초등학교 전경과 학교 숲길
2. '읽기 놀이터'. 텐트 안에서 엄마 선생님과 함께 책을 읽고 간식을 먹으면서 가족의 정을 느끼는 아이들
3. 교육공동체 간에 소통의 문화를 강조하는 윤숙자 교장

4. 알뜰장터를 기획하고 홍보하고 진행을 주도해온 학생회. 최지형 학생회장은 인산인해를 이룬 알뜰장터를 둘러보며 “뿌듯하다”는 말로 활짝 웃었다.
5. 학생회의 주도로 마련된 알뜰장터. 파는 아이들도 사는 아이들도 즐겁지만 하다.
6. 알뜰장터의 수익금 중 30%는 나눔을 위해 쓸 줄 아는 지혜로운 아이들





강주희 교사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지구를 지키는 약속, 우리들이 행동해요

지역사회와 세계의 환경, 경제, 사회 등과 관련하여 직면한 문제들을 아이들과 함께 토론하고 생각을 나누는 시간. 서울신곡초등학교 강주희 교사가 3년째 이끌고 있는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젝트 수업이다. 아이들은 도심 속 텃밭에서 친환경 농사를 짓고, 마을을 탐방하면서 지속가능한 삶에 대해 배우는 중이다.

1.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해 배우고 지구를 지키는 약속을 다짐하는 아이들
2. 강주희 교사는 3년째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젝트 수업을 이끌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대표들이 모여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를 정하고 반드시 지키자고 약속을 했어. 그게 몇 개라고 했죠?”

“열일곱 개요.”

“열여섯 개가 아니고?”

아이들은 첫 번째보다 더 큰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니에요. 열일곱 개.”

5월 2일 오전, 서울신곡초등학교(교장 고관희) 1학년 2반 아이들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이날 수업의 주제는 ‘지속가능발전목표’였다. 강주희 교사는 유엔에서 새천년개발목표로 발표했던 주제인 지속가능발전교육(ESD, Educ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프로젝트로 3년째 이 수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선생님, 저는 ‘평화’ 카드 골랐어요!”

이 지속가능발전교육 수업은 지역사회의 환경, 경제, 사회 등과 관련하여 직면한 문제들을 아이들과 함께 토론하고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다. 각 교과마다 분절돼 있는 환경교육, 경제교육, 나눔교육 등을 지속가능발전목표라는 주제로 엮어내는 것이다. 이날 수업에 강 교사는 ‘빈곤 종식, 기아 종식, 교육 보장, 에너지 접근 보장, 기후변화 대응, 해양생태계 보전, 평화와 정의를 위한 제도 구축’ 등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 카드를 준비, 학생들에게 나누어주었다.



그리고 강 교사는 TV 모니터에 사진 한 장을 띄웠다. 직접 불을 피워 밥을 짓는 장면이었다. 학생들에게는 제시한 사진에서 공감할 수 있는, 동일한 주제의 목표카드를 고르게 했다. ‘에너지’라는 주제의 목표카드를 고른 학생이 있는가 하면, 밥 짓는 장면에서 기아로 고생하는 아프리카 친구를 떠올린 아이도 있었다. 선생님이 제시한 사진의 주제와 일치하는 목표 카드를 뽑아둔 학생들에게선 정답을 맞췄다는 기쁨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이어 강 교사가 보여준 사진은 판문점에서 이뤄진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가 반갑게 악수하는 장면. 맨 앞에 앉아 있던 도현이가 가장 먼저, “선생님, 여기요!” 하면서 ‘평화’의 메시지가 담긴 목표카드를 뽑았다. 다른 친구



들도 도현이에게 뒤질세라 너도나도 평화의 지속가능발전 목표카드를 머리 위로 높이 들어올렸다.

“일단 맛보세요. 유기농 상추 정말 좋아요.”

“3년 전, 발전교육연구회 실천교사로 활동하면서 이 수업을 처음 구상하게 됐죠.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어휘와 개념 자체가 저학년 대상 수업으로 적절할까? 하는 의구심도 없진 않았지만, 지난 1년 동안 이 수업과 함께 한 시간들을 돌아보면 아이들이 참 많이 성장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죠. 교실 수업에서는 만나볼 수 없었던 아이들의 새로운 면모나 역량들을 새로 발견할 수도 있었어요.”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은 시사 관련 뉴스를 시청하기 시작했고, 생활의 변화에 대한 피드백도 목격되고 있다고 강 교사는 소개했다. 요즘처럼 텃밭 농사가 한창일 때면, 거의 매주 현장에 나가야 하는데, 이곳에서 유독 재능 발휘와 두각을 나타내는 아이들도 나온다.

텃밭에서 아이들이 직접 기른 유기농 채소들은 판매까지 직접 맡고 있다. 교내 눈에 잘 띄는 곳에 상추와 고추 등 ‘어린이를 돕는 가게’ 광고지를 붙이는 것도 아이들의 몫. ‘일단 맛보세요. 유기농 상추 정말 좋아요.’라고 광고한 상추는 1봉지에 학생은 500원, 어른과 선생님께는 1,000원씩 받고 팔았다. 유기농 채소들은 판매 시작 2~3분 만에 매진되곤 했다. 지난해 이 텃밭 농사의 판매수익금은 학생들이 직접 투표로 정해 구호단체 월드비전에 기부했다.

“텃밭 농사와 판매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아이들은 지속가능한 소비에 대해서도 생각을 키워나가게 되죠. 이 뿐만이 아니라, 삶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한 원칙을 적용하여 실천하는 소양을 기를 수 있게 됩니다. 아이들은 계량할 수 없는, 점수보다 훨씬 더 값진 가치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3. 제시된 TV 화면을 보고 공감할 수 있는 카드, 동일한 주제의 목표카드를 찍과 한마음이 되어 고른다.
4. 조잘조잘 이야기를 나누며 바쁘게 고사리 손을 움직여 고추 모종을 심는 아이들
5. 지난해 10월경, 속이 꽉 찬 배추를 수확하였다.
6. 지난해 12월경, 마을탐방 프로젝트를 하며 대통령께 편지를 쓴 아이들. 얼마 후 대통령 할아버지에게 답장을 받던 날, 아이들은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났으며 기뻐했다.
7. 지속가능개발목표를 24글자로 꾸미는 활동. 칠판의 글자를 옮겨 쓰는 과정에서 한글공부가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대통령 할아버지, 사랑해요!”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수업시간. 지난해 이 프로젝트 수업의 마을탐방은 6차시 동안 4학년 3반 학생들과 함께였다. 아이들은 ‘마을 살펴보기’로서 내가 사는 마을의 골목별 쓰레기 불법 투기수를 구역별로 나누어 조사했다. 마을을 더 좋게 만드는 공유지도도 함께 만들었다. 4학년생들은 리더십을 발휘해 1학년 동생들을 이끌었고, 1학년 2반 아이들은 그런 언니·형들을 믿고 따랐다.

지난해 12월, 이 마을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은 대통령 할아버지께 편지도 보냈다. 범준이는 편지에 “우리 화곡 4동은 인도가 많이 없어요. 인도 좀 많이 만들어주세요. 이 사실은 4학년 형, 누나들이랑 마을탐방을 해서 알게 된 거예요. 대통령 할아버지 사랑해요.” 라고 썼다. 그로부터 얼마 후, 대통령 할아버지로부터 실제로 편지에 대한 답장을 받던 날, 아이들은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났다면 기뻐했다.

올해부터 1학년 전 학급으로 확대 시행

‘지속가능개발목표’ 카드 주제 맞추기 퀴즈가 끝나고 이어진 활동은 모둠별로 글자카드 색칠하기. 색도 칠하고, 한글공부도 하게 될 글자는 ‘지구를 지키는 약속, 지속가능발전목표, 우리들이 행동해요’ 24자다. ‘키’자 카드를 받아 빨강, 노랑 등의 색깔을 정성껏 칠하던 영준이는 곧이어 파란



색연필로 글자를 채웠다. “아이들은 배우지 않는 것처럼 배우고,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성장하잖아요. 지난 1년, 저와 함께 지속가능발전교육에 참여했던 아이들은 ‘행동’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 알고, 또 실천하고 있죠. 올해 1학년들도 이제부터 텃밭 농사도 짓고, 마을탐방도 하면서 지속가능한 삶에 대해 다시 공부하게 됩니다. 저 역시 새로운 시대, 교사의 역할에 대해 다시금 되새겨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이 교실수업 취재가 있던 날은 마침 텃밭에 고추 모종을 심기로 한 날. 수업을 마친 강 교사와 1학년 2반 아이들은 서둘러 본관 앞 텃밭으로 이동했다.

지난해까지는 강주희 교사 홀로 이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했지만, 올해부터는 1학년 전 학급으로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다. 2

지속가능발전교육 수업 ‘아름다운 1년’의 기록

- | 4월 | 지속가능 농업, 고추 모종과 상추 등을 심으며 텃밭 일을 시작하다.
- | 5~7월 | 상추와 고추 등을 직접 수확하고, 깨끗하게 씻어서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판매하다. 상추 1봉지에 학생은 500원, 어른과 선생님께는 1,000원.
- | 6월 | 태양과 바람, 그리고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 | 9월 | 허수아비를 만들어 밭에 세워주고, 고춧대를 뽑아 여름 밭을 정리하다.
- | 10월 | 업사이클링 활동으로 우리 동네 나눔 릴레이에 참여하고, 속이 꽉 찬 배추를 수확하며 텃밭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을 이야기하다.
- | 11월 | 천만다행(천원도 만원도 우리의 기부가 모두 다 행복한) 모금 릴레이에 참가하다.
- | 12월 | 어린이를 돕는 가게를 한 번 더 운영, 연필꽂이를 판매하다. 4학년 3반 형, 누나들과 함께 한 마을탐방에서 알게 된 불편한 점을 문재인 대통령 할아버지께 편지로 쓰다. 그리고 대통령 할아버지께 답장을 받다.

김상곤의 세 번째 교육편지

투사와 시인과 화가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찬란한 봄 소식이었습니다. 온 국민이 가정과 사무실, 교실에서 환호하고, 세계의 모든 시선이 판문점에 쏠려 있었습니다. 지지와 성원이 이어지고 가파른 대립의 위기 속에 놓였던 한반도에 찾아온 화해와 협력, 평화의 봄에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행복한 교육 독자 여러분!

이번에 이루어진 판문점 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은 '세 번째 정상회담과 선언'이라는 의미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두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면서 남과 북 사이에 70여 년 이어져 온 분단-전쟁-냉전이라는 과거의 역사가 소환되고, 우리 모두는 함께 만들어 갈 화해-협력-평화의 미래와 손잡았습니다. 교육부 장관으로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전쟁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마음껏 상상력을 펼치며 살아갈 기반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한편, 평화와 통일에의 뜻과 마음을 모으는 일은 중요하지

만 기적같은 성과를 조급하게 요구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첫발을 내디뎠을 뿐입니다. 프랑스 대혁명의 역사에서 물리적인 바스띠유는 순식간에 무너졌지만 앙시앙레짐(구체제)은 오랫동안 지속된 것처럼 70여 년을 이어져온 적대와 혐오의 분단체제는 우리의 문화와 의식 속에 더 오래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차근차근 준비하며, 끊임없이 노력해야 평화롭고 통일된 한반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통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통일에 이르는 과정을 긴 안목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통일된 한반도의 주인공인 우리의 아이들이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짚어보는 일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이미 고착화된 분단체제 속에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이전 세대보다 분단과 냉전의 상처에 대해 덜 민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애초에 하나의 민족이었고, 하나의 언어, 하나의 문화를 가진 하나의 나라였다라는 것만으로 통일의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것 역시 낯설어합니다. 게다가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

무엇보다 통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통일에 이르는 과정을 긴 안목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통일된 한반도의 주인공인 우리의 아이들이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짚어보는 일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식 못지않게 무관심이 넓게 자리잡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통일된 한반도를 살아갈 아이들이 통일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무관심하다는 것은 통일이 우리의 희망이면서도 큰 과제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것은 통일을 위해 상호 존중에 바탕을 둔 평화와 협력의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긴 시간에 걸쳐 신뢰를 쌓고, 이렇게 축적된 신뢰를 바탕으로 통일을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통일을 희망과 관심으로 바꾸는 것은 교육부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래서 저는 판문점 선언,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헌법 제5조 1항에서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말하고 있는 내용을 평화통일교육으로 구체화하여 남과 북이 하나된 봄을 이어가는 일에 교육부가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복한 교육 독자 여러분!

4월 27일의 정상회담 장면은 두고두고 되풀이해 봐도 감격스럽습니다. 특히, 도보다리 회담은 인간과 자연이 만들어

내는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연초록이 우거진 도보다리에서 두 정상이 이야기를 나누고, 곁에는 나무랑 새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푸르른 들풀과 풀잎 사이사이로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로 바람이 스치고 나비가 날아와 앉습니다. 나비는 카메라의 앵글을 벗어나 구멍 뚫린 철모 사이로, 민들레 노란 꽃 위로 날아가 앉습니다. 순간 꽃씨가 바람을 벗 삼아 사방으로 흩어져 날아가고, 봄은 철조망 높이만큼 피어올라 북으로 남으로 퍼져갑니다. 그 순간 우리는 정상회담을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있지 않고, 갈라섬이 없이 자유로운 하늘과 바람, 나비와 민들레를 노래하는 시인이자 화가가 되었습니다.

저와 같이 독재와 분단의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은 민주주의와 평화를 외치며 투사가 되어야 했지만 평화롭고 통일된 한반도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은 바람과 풀과 민들레 꽃씨를 노래하는 시인이 되고 화가가 되길 바랍니다.

통일된 한반도를 그리며 어린아이처럼 설레이는 마음으로 5월을 맞게 되어 행복합니다. ②



4·27 남북정상회담, 하늘로 날아오르는 평화의 꿈

글·사진 김재윤 명예기자(신대초등학교 교사)



지난 4월 27일 오전 9시 30분, 몇 초간 정적이 흐른 뒤 교실 전체에 일제히 환호성이 터지며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우와! 군사분계선을 넘었어!” “문재인 대통령이랑 김정은 위원장이 악수했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이날, 전남 신대초등학교(교장 임종윤)에서는 역사적인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 계기교육이 진행되었다. ‘봄이 오고, 평화가 시작된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계기교육은 학생들에게 평화 통일에 대한 의지를 고취시키고, 남북정상회담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는 식으로 열렸다.

남북 정상 간 만남 수업으로 생중계 시청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는 오전 9시 30분에 맞춰, 6학년 1반에서는 사회 수업과 연계한 계기수업이 진행되었다. 6학년 학생들은 이전 사회 수업에서 한국전쟁에 대해 배운 직후라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신기하다고 말했다. 전교학생회장인 6학년 이미지 학생은 “옛그제 한국전쟁을 배우면서 남북한이 대립하는 모습을 봐서 슬펐는데, 오늘은 남북한 정상이 만나는 모습을 보며 기쁘다.”고 말했다. 이날 계기수업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의 역사와 의의 그리고 이번 회담 준비과정 등이 다뤄졌다. 학생들은 저마다 궁금한



점들을 물어보며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배웠다.

이번 계기수업을 진행한 강갑준 교사는 “교과서로만 가르쳤던 역사를 생생한 순간을 통해 가르칠 수 있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수업 직후 학생들은 TV 생중계를 통해 오전 9시 반 남북 정상이 마주하는 모습을 시청했다. 남북 정상이 악수를 하는 순간 학생들은 박수를 치며 한 번 놀랐고, 김정은 위원장의 깜짝 제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쪽으로 군사분계선을 잠깐 넘어가자 또 한 번 환호성을 지르며 놀랐다. 생중계 직후, 학생들은 “정상회담을 보면서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씩 바뀌어 간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았다. 학생들과 함께 생중계를 시청한 교직원들도 긍정적인 남북한 관계를 새로워했다. 11년 전 중학생으로 교실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봤던 기자도 이제는 교사로서 학생들과 함께 3차 회담을 보니 만감이 교차했다.

평화 통일 기원하는 종이비행기 날리기

신대초 학생들은 생중계를 시청하면서, 이번 회담의 성공과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적은 ‘평화의 비행기’를 만들었다. ‘평화의 비행기’는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에서 착안한 것으로 신대초 구성원 모두의 평화에 대한 의지가 담겼다. 학생들은 고사리손으로 정성스레 접은 ‘평화의 비행기’를 갖고 운동장으로 나와 종이비행기를 날리며 평화 통일을 기원했다. 4학년 김나현 학생은 “‘평화의 비행기’에, 하루빨리 평화 통일이 이뤄져서 6학년 때 평양이나 금강산으로 수학여행을 가고 싶다고 적었다.”라며 설렘을 표현했다.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운동장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곳곳에서 ‘평화

의 비행기’를 날리면서 이번 정상회담을 축하했다. 임종윤 교장은 “‘평화의 비행기’에 담긴 학생들의 소망이 북녘땅까지 전해졌을 것”이라며 “이번 계기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마음 속에 통일에 대한 의지가 자리 잡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통일, 함께 준비해요!

글_ 조원표 명예기자(소안초등학교 교사)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아이들이 분단의 아픔과 평화통일을 상징하는 장소를 다녀왔다.

경기 소안초(학교장 장수열)는 지난 4월 20일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으로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과 모두산 통일전망대를 다녀왔다. 4학년 학생 3개 반 80명은 ‘통일-둘이 아닌 하나 되기’라는 주제로 체험학습을 다녀왔는데 경기도교육청 학교평화통일교육(공감 통일역사 인문학 기행) 공모에 선정되어 교육청과 학교의 예산 지원을 받아 실시되었다.

출발 전 학교장의 5분 안전교육을 시작으로 체험 장소로 이동하여 DMZ 스토리텔링, 파주 장단콩 초콜릿 체험,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서 점심식사 및 휴식을 하고 모두산 통일전망대에 도착하여 통일 염원 편지쓰기로 했다. 어린 학생들이 남북 분단 현장을 직접 방문함으로써 남북통일의 필요성을 느끼고 올바른 국가관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최근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미래 통일 세대들에게 올바른 통일교육을 실시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

연령대로 본 4·27 남북정상회담

글·사진 박은희 명예기자

4·27 남북정상회담을 지켜본 이들은 모두 약속이나 한 듯, 매우 감격스럽고 하루빨리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할머니의 말은 가슴을 찡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 그리고 연령대별로 느낀 4·27 남북정상회담 이야기를 들어보실래요?

부산 성천초등학교 6학년 선현주(좌), 김도희(우)

평소 북한에 대해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남북 간 정상이 만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 과연 가능할까?’라고 생각했어요.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서 불안하다고 생각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남북정상회담을 보고 ‘통일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 사람을 만난 적도 없는데, 참 신기해요!



부산 한바다중학교 3학년 조영서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남북정상회담을 지켜보면서 깜짝 놀란 건 모두 진지하게 시청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김정 은 위원장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은 인생에 통일을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자연스럽게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빨리 통일되어 해군인 아버지가 집에 자주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용인외대부고 1학년 김나윤

중학교 시절부터 북한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요. 현재 고등학교에서도 북한인권동아리에 가입하여 초등학생들에게 북한 인권에 대해 설명하는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2018 남북정상회담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통일이 빨리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로에 그어진 차선이 차가 많이 다니면 없어지듯~ 우리의 분 단선도 수많은 사람과 차로 자연스럽게 없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대학교에 다닐 즈음에는 친구들과 함께 북한으로 여행갈 수 있길 바랍니다.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4학년 신동유

4·27 남북정상회담을 보면서 마치 영화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았습니다. 남북이 경직 된 기간에는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도 든 적이 있는데, 11년만에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져 정말 기쁩니다. ‘조 금 더 빨리 만날 수 있었다면’이라는 아쉬움도 남았지만 북한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과 많이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아산 복수초등학교 1학년 김도현 군과 어머니 황경주

4·27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아이와 남북 정상에 대해 대화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저의 아이만 그런가 요? 저도 모르게 아이는 북한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은 북한에 대 해 또는 북한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편견을 가진 것은 아닐까?’ 하는 반성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아이들은 세상을 좀 더 평화롭고, 아름답게 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부모로서 통일에 대한 책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새터민 출신 한의사 1호 김지은(남북한의학연구소 소장)

정치적인 상황 등 모든 것을 배제하고 우선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작은 바람이 있다면, 현재의 정상회담 모습 이 일회적인 회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북 모두가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과 좋은 결과로 마 무리되길 바랍니다.



글_ 정용주 교육부 대변인실 교육연구사

자본주의의 참뜻을 실천에 옮기는 방송국



유한양행의 창업자이자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유일한 박 사는 기업이 이윤만을 추구하는 조직이 아니라 기업 활동을 통 한 하나의 공동 운명체이자 공공의 것이라는 신념을 평생 동안 실천함으로써 자본주의의 참뜻을 세우고자 했다. 유일한 박사 는 정직, 성실, 신용의 정신으로 기업을 운영해 이익을 내는 것 만이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는 부지 런히 일히 이익을 내는 것과 더불어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참뜻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여기 유 일한 박사의 뒤를 따라 기업으로서 이윤을 내기 위해 노력하면 서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 있다. 바로 JTBC 방송국이다.

교육부는 해마다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공익광고를 제작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 차별, 오해를 극복하고 장애가 한 사람이 가진 개성으로 존중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공익광고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방송국에서 송출하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광고내용이 전달될 수 없다. 더군다나 광고료 가 비싸기 때문에 장애인식 개선에 대한 공익광고를 여러 방 송 국에서 다양한 시간대에 송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JTBC는 2011년부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을 위한 공익광고를 무료로 송출해 오고 있다. 이렇게 JTBC 방

송국이 교육부와 함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편견을 지우는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써 캠페인이 의 미있게 되었다.

이에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38회 장애인의 날에 즈음하여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익이 나지 않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따뜻한 방송국 JTBC에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JTBC에 감사패를 수여하기 전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은 “내 아이만 잘 키운다고 내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말을 되새기면서 장애에 대한 편견을 지우는 것은 인권 과 민주주의의 문제로 온 사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JTBC 방송국 김수길 대표는 “장애와 같이 개인이 선택하 지 않은 것으로 인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온 사회가 함께 협력 하여 책임을 다하겠다.”며 “유한양행처럼 JTBC도 이익을 내야하 는 민영방송이지만 방송이 가지는 공익성을 살려 방송사로서 사 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다.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황금시간대에 JTBC에서 송출 되는 장애인식개선 공익광고를 보면서, 다시 한 번 JTBC 방 송 국에 고마움을 느꼈다. JTBC처럼 사회 속에서 공공의 신념을 실천함으로써 자본주의의 참뜻을 세우는 기업이 많아지길 바 람다.

개정 교육과정, 새 교과서를 적용한 학생 참여 중심의 '프로젝트 수업' 현장을 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교육현장에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에는 초등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새 교과서가 적용되고 있다. 새 교과서는 그동안 지식을 설명하고 주입하던 방식에서 학생 참여가 한층 강화된 형태로, 지난 4월 30일 공주교대부설초등학교에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새 교과서를 활용한 참여 중심 프로젝트 수업이 열렸다.

프로젝트 기반 수업(Project Based Learning)이란, 학습자들이 직접 질문을 만들고 그 질문을 바탕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는 수업으로 학생들이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기존의 교과서가 답을 주는 방식이었다면, 새 교과서는 질문과 활동을 통해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 교과서를 활용한 참여 중심의 프로젝트 수업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교실혁명을 통한 학교혁신의 큰 축을 형성하고 있다.

'학생이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교실혁명

이날 공주교대부설초에서는 3학년 사회과와 4학년 국어과 공개수업이 이뤄졌다. 국어과에서는 올해 3~4학년군에 처음으로 도입된 '한 학기 한 권 읽기' 활동이 프로젝트 수업으로 재탄생하였다. 11차시 수업 중 9차시의 해당하는 이날 수업은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 동영상을 통해 그동안의 활동 모습을 소개했다. 교실에서 눕거나 앉아 자유롭게 책을 읽는 아이들의 모습, 아이들이 직접 고른 책으로 독서하는 과정이 학업 과제가 아닌 하나의 놀이처럼 과정을 즐기는 아이들을 엿볼 수 있었다.

책읽기를 통한 배움, 성장은 함께 읽고 생각을 나누는 과정에서 폭발한다. 육하원칙이 적힌 주사위를 굴려서 나온 방법으로 친구에게 질문을 하는가 하면, 책 내용을 담은 '그림



1

- 1. 2. 공주교대부설초 4학년 국어과 '한 학기 한 권 읽기' 활동 프로젝트 수업.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직접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 3. 학생들의 조사보고서



2

카드'를 골라 친구에게 왜 이 카드를 골랐는지 이유를 설명하기도 한다. 등장인물이 되어 친구의 질문에 답하기도 한다. 아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신한 수업 방법을 고민한 주길준 교사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고, 게임 하듯 흥미롭게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특히 학생들 간의,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모습도 관찰되었다. 교사가 모둠 활동 중 소극적인 아이들을 관찰하여 자연스럽게 참여를 이끄는 모습과 또래끼리 질문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은서 학생은 "책을 읽고 친구들과 질문과 토론을 통해 친구들과 싸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주길준 교사는 "그동안 학교에서 꾸준히 독서교육을 해왔지만 책 읽는 과정보다는 다독 중심의 교육을 해왔다."며 "실제 책 읽기를 해보니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모르는 아이들이 많았다. 함께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답을 찾는 수업은 학생들의 경쟁을 유도하지만, '참여와 소통'이 있는 수업은 모든 학생을 존중하고 서로를 이해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우리가 조사·발표하는 수업, 공부가 잘 된다"

사회과에서는 내가 사는 고장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공주의 옛이야기를 다양하게 표현하는 수업이 이뤄졌다. 고장의 역사적 유래를 조사보고서로 작성한 후 쉽게 소개할 수 있도록 발표 방법을 선택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 및 협력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 1모둠 '박물관과 반죽동 이야기' 2모둠 '인조와 인절미' 3모둠 '일락산' 4모둠 '국고개' 5모둠 '황새바위' 6모둠 '우리옛이야기 고마나루'라는 조사보고서를 토대



3

“학교교육의 본질인 수업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초·중·고 수업시간을 모두 합한 1만 2,726시간 동안 학생들이 무엇을 경험하고 배우느냐에 따라 성장이 달라진다. 참여 중심 수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우리교육이 바뀌어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로 역할놀이, 노래가사 바꾸기, 안내책자, 구연동화 등의 방법을 선택해 재미있는 발표를 이어나갔다.

은서, 인준, 다현, 예찬 학생은 ‘인조와 인절미’를 소재로 역할놀이를 계획했다. 한양에 있던 인조가 ‘이팔의 난’을 피하기 위해 공주로 내려왔고, 이때 춥고 배고픈 인조에게 민가에서 이름 모를 떡을 인조에게 진상하였다. 떡의 이름은 모르고 가져온 이의 성 ‘임’과 ‘절미’를 따서 ‘임절미’라고 불리던 것이 인절미가 되었다는 것을 역할극으로 표현한 것. 각자 인조, 임씨 성의 백성, 신하1, 신하2의 배역을 정해 역할극으로 표현하는 아이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는다.

또한 자료조사에서부터 보고서 작성, 표현활동까지 학생이 중심되어 공주의 옛이야기를 풀어내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협력하며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모둠활동에 참여한 김다현 학생은 “새 교과서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공주지역에 대한 다양한 옛이야기를 모둠별 우리끼리 스스로 조사하여 발표하니 공부가 더 잘되고 학교생활이 즐거웠다.”며 “선생님 말만 듣는 수업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활동하며 만들어가는 수업이라 매우 재미있고 발표할 때 좀 떨렸지만 자부심이 생겼다.”고 말했다. 수업을 참관한 학부모들은 “아동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발견하고 찾아내어

정리하는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은 창의력과 탐구력 향상, 서로의 의사소통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혜원 교사는 “교과서를 가르치던 수업에서 아이들이 주체가 되어 조사하고 정리하여 발표하는 교과서로 배우는 수업 지도는 아이들의 다양한 생각과 꿈을 키울 수 있어 즐거운 학교생활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교육의 본질인 수업을 고민할 때”

한편, 이날 수업참관에 나섰던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직접 모듬활동에 참여하여 학생들과 생각을 나누고 자료를 만들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교사·학부모·기자 등이 참석한 간담회 자리에서 “학교교육의 본질인 수업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초·중·고 수업시간을 모두 합한 1만 2,726시간 동안 학생들이 무엇을 경험하고 배우느냐에 따라 성장이 달라진다. 참여 중심 수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우리교육이 바뀌어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연화 교장은 “공주교대부설초에서는 2017학년도부터 학생 참여형 융합수업을 해오고 있다.”며 “분과형 체제 안에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교육부 차원에서 교육과정 정보 제공과 검색시스템을 만들어줄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㉔

4. 새 교과서를 활용한 학생 참여 중심의 프로젝트 수업을 참관하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5. 김상곤 부총리가 교사·학부모·기자 등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IF you can dream it, you can do it (꿈꿀 수 있다면, 이룰 수 있다)_ 윌트 디즈니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 외국어교육부는 4월 20일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188명과 교장선생님, 책임지도교사, 원어민보조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8 Global JOB School’ 개강식을 가졌다. 글로벌 잡 스쿨(Global JOB School)은 특성화고 학생들의 해외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2015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3년간의 1차 사업 종료 후 2018년부터 4년간의 2차 사업이 운영된다. 찾아가는 외국어(영어/중국어)교실, 캠프, 세계시민교육, 온라인 자기주도학습, 직업체험으로 구성된 연중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취업에 필수적인 외국어 능력을 쌓을 뿐 아니라, 해당 문화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인관계 훈련, 팀워크 배양, 세계시민의식 향상, 목표의식 강화 등의 체계적인 교육을 받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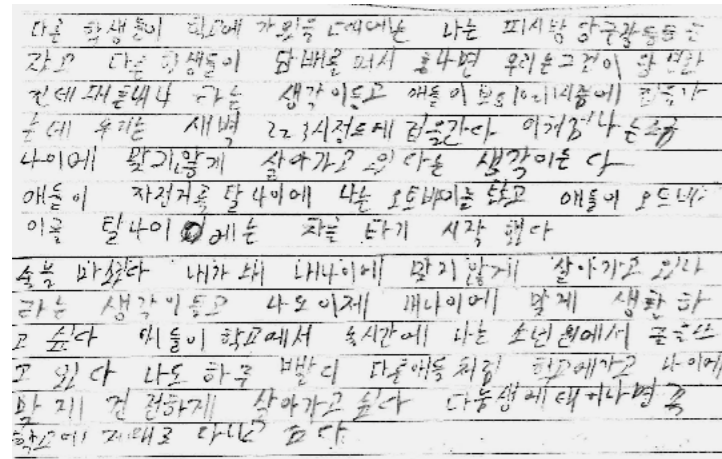
특히 찾아가는 영어/중국어 교실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에 배치된 12명의 영어/중국어 원어민 보조교사들이 직접 해당학교를 방문하여 주 2회, 회당 2시간씩 집중적인 실용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기대가 매우 높다.

재능고등학교 최형길 교사는 “학생들이 전공 분야의 전문지식과 기술이 있어도 언어의 장벽에 막혀 더 높은 곳으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외국어수업의 비중이 낮은 것이 현실인데, 이런 좋은 계기가 우리 학생들이 꿈을 펼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스피치를 맡은 인천중앙여자상업고등학교 이유진 학생은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외국어 수업을 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여러 가지 수업과 활동을 통해 외국어실력도 쌓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도 높이면서 내 꿈을 향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 배움의 기회를 준다



“다른 학생들이 학교에 가 있을 때 나는 PC방, 당구장을 갔고, 애들이 자전거를 탈 나이에 나는 오토바이를 탔다. 애들이 학교에서 놀 시간에 나는 소년원에서 글을 쓴다. 나도 하루 빨리 다른 애들처럼 학교에 가고 나이에 맞게 건전하게 살고 싶다.”

청소년보호시설인 신촌정보통신학교 학생이 쓴 글이다. 지난 4월 신촌정보통신학교 학생 3명은 중학교 학력을 인정받았다. 강원도교육청은 2016년 12월 신촌정보통신학교와 업무협약을 맺고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을 운영해왔다. 의무교육단계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한 선생님은 “사고 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라 힘들 것이라는 시선이 많았지만, 실제 수업을 해보면 정규 학교 수업과 비교해 어렵지 않고, 오히려 수업에 더 잘 참여한다.”며 “아이들이 배

움을 멈추지 않고 계속 공부하려는 의지를 보여 보람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에 중학교 학력인정을 받은 학생들은 자신의 꿈을 위해 상위학교 진학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합창으로 소통하고 화합하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대전에듀코어스는 지난 4월 27일(금)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에서 합창 공연을 가졌다. 이번 공연은 올해 초



시무식에 이어 2번째 공연으로 대전지역 유·초·중등 교(원)장, 교감 및 교육전문직 4백여 명을 대상으로 한 노사 관련 연수의 식전행사로 진행되었다.

1부에는 '보리밭', '희망의 나라로', 'You raise me up', 2부에는 '우리', '아름다운 나라',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등 총 6곡을 선보였는데, 우리에게 친숙한 한국가곡과 노사 간의 화합의 뜻이 담긴 곡을 열창하여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대전에듀코어스는 교육청의 특성상 이원화된 전문직과 일반직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작년 12월에 창단되었으며, 이용균

부교육감을 비롯해 장학관, 장학사, 사무관, 주무관 등 다양한 직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총 35명의 단원이 활동 중이며, 대전평생학습관 임태수 관장이 단장을, 체육예술건강과 배은영 장학사가 지휘를, 감사관실 박승훈 장학사가 반주를 맡았다. 대전에듀코어스는 오는 8월 말 대전예술의 전당에서 정기연주회도 가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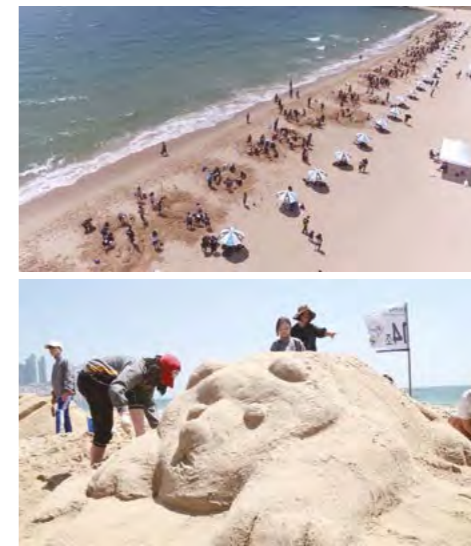
예술성과 창의성을 키우는 예얼 모래조각

한국조형예술고등학교(교장 이연호)는 5월 4일 '예얼 모래조각 경연대회'를 개최하였다.

공예와 디자인 분야 공립 특수목적 고인 한국조형예술고는 부산의 관광 자원을 활용하여 예술작품을 만드는 취지에서 대회를 기획했다. 올해로 7번째인 이 행사는 학생들에게는 예술적 감성과 창의성을 길러주고 해운대를 찾은 시민이나 관광객에게는 볼거리를 제공한다.

예얼 모래조각 경연대회에 참가한 1, 2학년 학생 320여 명과 교직원 60여 명은 32개 팀을 이뤄 여러 가지 캐릭터, 동물, 사람 얼굴 형상 등 대형 입체 모래 조형물을 제작한다.

학생들은 선생님과 함께 주제를 정하고 작품을 구상한다.



또한 사제가 함께 모래위에 스케치를 한 뒤 모래를 쌓고 그 위에 바닷물을 뿌리면서 형태를 만들어 전체적인 균형과 질감을 손질해 작품을 만든다. 완성도, 창의성, 팀워크 등을 평가해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우량상 4팀을 각각 선정해 시상한다.

처음 참여하는 1학년 학생들은 경치 좋은 곳에서 시민들에게 작품을 선보이게 돼 긴장되지만 자부심을 느낀다며 대회에 대한 기대감을 내보였다.

이연호 교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학생들은 학년 간, 사제 간 소통하고 협력하는 방법에 대해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며 “또한 우리 고장 자연경관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는 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전교원 대상, '교원배상책임보험' 적용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광주지역 전 교원(기간제 교원 포함)과 교육전문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은 5월 1일부터 2019년 4월말까지 적용된다. 수업, 학생상담 및 학생 지도 감독 등 학교시설이나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우연한 모든 사고에 대해 교원에게 배상청구가 제기된 경우 1인당 연간 최대 2억 원, 시교육청 전체 연간 최대 10억 원 한도로 법률상 손해를 배상해준다.

또한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안에 대해 소송을 당할 경우의 소송비용(변호사 선임료)과 교육활동 중



일어난 행위로 인해 발생한 민사상 합의금 등이 포함된다.

교원의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벌, 인격침해 등으로 인한 사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교원배상책임보험이 가입돼 교원들이 각종 교육활동과 관련해 정신적·신체적으로 위축되는 것을 예방하고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며 “앞으로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교권보호 지원센터는 광산구 신창동 광주교육지원센터(1644-9575)에 위치해 있다.



온 마을이 함께 아이들을 키워요

‘2018 세종마을학교’가 세종시 곳곳에서 다채로운 입학식을 열고 힘찬 시동을 걸었다. ‘세종마을학교’는 시민들이 마을에서 방과 후, 주말, 방학 기간에 학생들의 배움과 돌봄을 위해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학교이다. 지난해 14개교에서 5개교가 늘어 2018년에는 19개교가 운영된다.

지난 4월 7일에는 학교놀이터와 숲 놀이활동을 하는 ‘우리 동네 놀이학교’, 14일과 15일에는 세종북부지역 유·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바둑교실과 자연놀이터 활동을 하는 ‘자라는 새싹’마을학교와 연동초 학생·학부모와 함께 미호천 생태 탐사 활동을 하는 ‘인앤인’마을학교가 각각 입학식을 갖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또한, 17일에는 범지기마을 5~6단지 주민들이 인근 아동들과



방과후 활동을 하는 ‘달빛숲놀이학교’, 21일과 22일에는 세종시 지역 역사와 문화를 탐방하는 ‘등잔밑 비추기’, 방축천 생태탐사와 생태감성교육을 하는 ‘물길 마을학교’가 각각 입학식을 열었다. 지난해와 달리 2018년 ‘세종마을학교’는 동지역뿐만 아니라 읍·면지역까지 확대되었으며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평소 경험하기 어려운 다양한 프로그램이 학교와 세부적인 협력 과정을 거쳐 운영한다.



협동학교군 손잡고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보성 관내 초등 협동학교군 5개교(노동초, 미력초, 회천서초, 조성초, 조성남초)가 지난 4월 24일 보성다향실내체육관에서 ‘2018. 협동학교군 손잡고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합운동회는 전남교육의 역점과제인 작은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소규모학교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기 활동 참여와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기회를 제공했다.

관내 5개 초등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사 360여 명은 청팀과 홍팀으로 나뉘어 6인승 KTX열차 달리기, 줄다리기, 불풍선



터트리기, 바나나 보트타기 등 다양한 신체활동을 하며 질서와 협동을 배우고 함께 마음을 나누었다.

노동초 6학년 한 학생은 “작년

청팀이었던 인접학교 친구를 올해도 같은 팀으로 만나 정말 기뻐했다.”며 “다른 학교 친구들과도 같이 어울릴 수 있어 너무 행복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노동초등학교 김선미 교장은 “참여한 가족 모두가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소규모학교 간 협동학교군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대학에서 ‘융합 교육’ 제대로 하기

융합 교육이란

융합(convergence)이란 ‘서로 다른 분야가 화학적인 결합을 통해 새로운 특성을 가진 분야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 ‘복합’, ‘통섭’, ‘통합’ 등 여러 단어가 혼용되고, 학자마다 다른 관점과 이해를 가지고 있다. 개념과 해석의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학문 세계는 물론 교육 현장에서도 융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학문 세계에서 융합은 세분화된 학문 분야들을 서로 연계하고 통합해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지금의 학문 체계가 지나치게 분화되어 탐구하려는 현상을 분절적으로 이해하게 할 뿐 전체적인 모습과 의미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반성에서 출발하였다.

교육 현장에서도 융합 교육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는 인재상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바야흐로 세계는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당면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통합적 사고력이 있는 인재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학습자들이 개별 학문의 경계를 넘어, 보다 종합적이고 창의적인 관점을 경험하고 사고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융합 교육이 등장한 배경이다.

최근 대학에서 융합 교육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학생들이 졸업 후에 맞이하게 될 세상은 함께 소통하며 살아가는 곳이다. 여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이를 풀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대학들은 융합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어느 한 분야의 지식만을 습득하는 ‘편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지적 경험과 인간적 교류를 통해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융합 교육의 방법들

융합 교육을 실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여러 학문 분야를 종합해서 얻은 통합적인 ‘내용 지식(subject knowledge)’을 전수하는 것이다. 하지만 특정 분야 연구에 천착해 온 교수들이 자신의 영역을 넘어 타 분야 지식까지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종합해서 가르치는 것은 어려운 도전이다. 학생 스스로 융합의 필요성, 융합 탐구의 어려움, 융합 과정에서 일어나는 지적 도전과 역동적인 인간관계를 경험하지 못하는 한계도 있다.

둘째는 학생들이 다양한 관점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역량 즉 ‘과정 지식(process knowledge)’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즉 융합 교육의 목표를 이미 융합된 지식의 전수보다 학생 스스로 융합해보는 경험을 갖는 것으로 이해하는 입장이다. 오늘날 대학에서 운영되는 많은 융합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다양한 문제해결 과정에서 융합 탐구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 과정에서 깊은 수준의 지적 체험과 다양한 인간 관계를 경험하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융합 교육이 성공하려면

학습자 주도(student-oriented)

제4차 산업혁명시대로 불리는 미래 사회에서 스스로 가치를 창출하며 살아가려면 전공 분야의 전문성 못지않게 창의적 문제 해결력, 다양성에 대한 이해, 협력적 태도, 사회정서 역량 등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내용 지식’을 습득하는 것보다 자기 주도적인 융합 탐구를 통해 ‘과정 지식’을 얻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융합적 탐구 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교육



활동의 중심에 학습자를 놓고, 그들이 다채로운 지적, 사회적 경험을 하면서 지식을 구성해가는 학습 경험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때, 융합 교육의 핵심은 학생이야말로 중요한 학습의 주체임을 새롭게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물론 교수자의 역할이 무시되어서도 안 된다. 학습자들이 학습의 과정을 주도해가도록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섬세한 준비가 필요하다.

문제기반 학습(problem-based learning)

융합 교육이 성과를 발현하려면, 학생들이 ‘유의미한 학습 경험(significant learning experiences)’을 갖도록 해야 한다. ‘유의미한 학습 경험’이란 학습의 내용과 과정이 자신의 실제 삶과 맥락적으로 연계되는 심층 학습(deep learning)이 일어나는 경우이다. 학습 과정이

목적이 있는 활동, 가치가 있는 활동이어야 하고, 학습자가 스스로 설정한 삶의 목표를 찾아가는 여정이 되어야 한다.

존 듀이(John Dewey) 말처럼, ‘교육은 삶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삶 그 자체여야 한다(Education is not preparation for life; Education is life itself)’. 프로젝트 학습(project-based)과 혼용되기도 하는 문제기반 학습은 실제로 닦친 문제나 향후 당면할 과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중시한다. 문제의 해결이나 프로젝트의 수행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다양한 지식을 동원하는 융합을 경험하고 다른 동료들과 협업하는 인간 관계도 경험하게 된다.

협동 학습

(Team-based cooperative learning)

융합 교육이 추구하는 ‘유의미한 학습 경험’에는 지식의 융합 활동뿐만 아니라 다른 배경과 관점을 지닌 사람과

의 역동적인 교류도 포함된다. 즉 융합 교육은 다른 사람과의 협동 학습을 통해 진행될 수 있고, 대체로 팀을 기반으로 하는 문제해결 학습의 형태로 진행된다. 여기서 팀은 공동의 목표 아래 각자 역할과 책임을 느끼고, 구성원들이 상호 의존성을 가지며 행동하는 하나의 생태계이다.

협동 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융합 교육은 단순한 집단 작업이 아니라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긍정적인 시너지를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의사소통 능력과 사회정서 역량을 기르고, 개방적 태도와 비판적 사고가 문제 해결로 이어지는 경험을 한다.

대학 수준에서 융합교육 사례

융합 교육은 자칫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형태로 흐르기 쉽다. 이는 융합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는 목적과 배치된다.

‘융합기초 프로젝트’는 융합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 네 가지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첫째, 팀을 만들어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다양한 지식과 경험의 융합이 일어나도록 모든 참여 팀은 3개 학과 이상의 학생으로 구성한다. 성별, 학년, 사전 학습경험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다른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최근에는 다른 대학 재학생과 연합팀을 만들기도 한다.

둘째,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도록 한다. 기존 프로젝트 학습이 주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라면, ‘융합기초 프로젝트’는 참여자가 스스로 문제를 찾아내어 해결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디자인 사고(design thinking)’를 적용하여, 문제의 공감부터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세스를 경험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참여자들은 문제의 탐색부터 해결까지 모든 과정을 ‘아이디어북(Ideabook)’에 기록한다.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이를 반성적으로 되돌아보는 경험을 한다. 프로젝트 운영자들은 참여 학생들이 서로의 지식과 경험이 역동적으로 교환하는 협동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의도적으로 학습 환경을 조성해나간다(Scaffolding).

넷째, 참여자들이 문제해결 과정에서 대학의 교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들을 만나도록 권장한다. 아이디어 공유회와 최종 성과발표회를 통해 대중 앞에서 발표하는 경험을 가진다.

지난 4년 동안의 성과를 분석한 결

과, 우선 참여자들은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전공 지식이 중요함’을 깨달았다고 하였다. 문제해결 과정에서 ‘창의적 발상(creative thinking)’과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가 필요함을 느끼고 경험했다고 하였다. 나아가 전공 분야를 넘는 ‘사고의 확장’이 수확이었다는 의견도 많았다. 한편 일부 참여 학생들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 자신을 알아가고 ‘성찰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했다. 팀 기반의 협동 학습을 진행하면서 과업의 수행이나 관계의 면에서 ‘갈등’도 경험하면서 ‘개방적 태도’와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문제를 찾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재발견’하는 경험을 했다는 점에서 다른 전공 수업과 달랐다고 말했다.

통합된 학문과 교육

오늘날 주목받는 융합 교육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철학을 중심으로 수학, 음악, 천문학 등 다양한 영역이 통합된 학문과 교육이 이루어졌다. 학문 분야별로 경계를 구분하여 각각의 지식을 나누어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접근하고 종합적인 이해를 추구하였다. 이렇게 볼 때, 융합이란 본래의 학문 세계와 교육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무엇보다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를 기르는 대표적인 방법이 융합 교육이고, 이를 구현하는 것은 대학의 책무이다. 27

수습교사제 다시보기

최근 서울시교육청에서 밝힌 ‘수습교사제’ 도입 관련 연구용역 발주 소식은 우리 교육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일단 교육청은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차원”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책의 당사자인 교대·사대생은 “힘들게 임용고사에 통과했는데, 또 평가라니”라는 반응을 보이며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수습교사제 도입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사실 10여 년 전부터 임용제도의 보완책으로 논의돼 왔으나 매번 극심한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었다.

교원의 자질 향상은 교육개혁의 핵심

수습교사제는 교원 임용시험 합격자가 일정 기간 동안 수습교사로 일하면서 교사로서의 자질을 판단, 수업능력과 학교적응 여부 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으면 정교사로 임용하지 않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현행 교원임용제도와 교사양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보완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일반적으로 초임교사는 경력교사에 비해 교육활동의 수

행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초임교사들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기술을 습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교사에 대한 준비교육으로서 수습교사제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이러한 시행착오로 인해 학생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세계 각국은 우수한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수습교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은 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공립학교 교사들은 각 교육구가 실시하는 전형 결과 임용이 결정되면, 대체로 1년 내지 2년 동안 수습교사로 고용되어 연수를 받아야 한다. 영국은 B.Ed.(Bachelor of Education, 교육학사 학위) 과정과 PGCE(Post Graduate Certificate in Education, 교육대학원과정 수료증) 과정, 그리고 15주의 교육실습을 이수한 후 교사 자격을 갖게 되면 1년 내지 2년(최저 1년) 동안 수습교사로 채용되어 연수를 받는다. 일본 역시 1989년 수습교사제가 도입되어 당해에는 초

등학교, 1991년 중학교, 1992년에는 고등학교에서 실시되었다. 일본에서 수습교사는 학교에 배치되어 학급 또는 교과목을 담당하면서 1년간에 걸쳐 시행되고 있다.

한편, 세계 각국은 교육개혁의 중심 목표로 ‘교육의 질’과 ‘커리큘럼의 질’을 내세우고 있다. 이 두 가지 목표는 결국 ‘교원의 자질 향상’으로 이어져 교육개혁의 핵심 과제가 되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보면 수습교사제는 교원의 자질 향상을 통해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고,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개혁에 긍정적이다. 하지만 앞서 교육당국이 수차례 수습교사제를 도입하려 시도했으나 극심한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적이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1999년 이해찬 당시 교육부 장관이 수습교사제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그리고 2014년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습교사제 도입을 추진, 교육 개혁 방안 중 하나로 교육부에 보고한 바 있다.

평가 전문성을 갖춘 교사의 부재

수차례 도입 시도에도 실제 정책에는 반영되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 첫째, 학교 현장의 수습교사 평가 여건이 마련되지 못했다. 학교 현장에서 수습교사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면 평가 전문성을 갖춘 교사의 양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평가 전문 교사의 양성에 따른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들의 지속적인 양성과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둘째, 수습교사제 그 자체의 결함인 문제이다. 즉 단위학교에서 수습교사의 정교사 발령에 관련된 평가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은 일선 학교와 현장의 교사들에게 교원 양성과 선발의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다면 수습교사제 도입을 위한 교육정책과 교육행정의 기반이 흔들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수습교사라는 한정된 지위에서 신입교원이 보여줄 수 있는 역량이 얼마나 될 것인지, 그리고 단위학



교별로 다른 환경 속에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볼아야 한다.

넷째, 수습교사제는 미발령 ‘교원임용시험 합격생’들의 처리 문제와 이미 수십 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예비교사들에게 이중의 부담을 준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상과 같은 다양한 이유 등으로 수습교사제는 실제 도입되지 못하였다.

교사의 질 높이기 위해 고민할 때

그렇다면, 대안은 없을까? 바야흐로 우리 사회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에서 교사의 역량 강화가 매우 중요

한 과제가 되었다. 하지만,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수습교사제 도입 및 운영방안’ 연구 용역처럼 교육청 차원의 정책 개선 방안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교육부 차원에서 연구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정책이 본질을 간과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될 필요가 있다. 수습교사제 도입 여부도 법령 개정을 통해 전국의 모든 교원임용시험 개선 방안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예컨대, 교대, 사대의 6년제 전환, 교육실습 기간의 연장, 교원 임용고사의 개선 등이 있을 수 있다. ⑦

또 다른 임용고사로서 수습교사제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려는 노력은 교사전문성을 어떻게 신장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교육정책의 핵심을 이루는 주제였다. 이렇게 교사전문성에 대한 논의가 교육실제에서나, 교육이론에서 핵심을 이루는 이유는 공교육이 최종적으로 교사를 통해 학습자에게 실현되기 때문이다.

공교육에서 교사가 가지는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교육학의 여러 분과에서 교사전문성과 관련한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졌고 많은 성과를 내어 이론적으로 축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 속에서 정책화되기도 하였다.

턱없이 부족한 실습기간

사실 수습교사제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10여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꺼내던 주제였다. 당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의사가 되는 과정에서 단기간에 그것도 형식적으로 수술을 해본 경험만을 가진 신출내기 의사가 환자를 수술한다고 할 때 우리는 매우 불안해 할 것이라는 것이라고 비유하며 보다 긴 시간에 걸친

교육 실무경험을 위한 제도로써 수습교사제 도입을 주장했다. 달리 말해 유네스코와 국제노동조합에서 교사를 전문직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는데 교사는 여전히 비전문직으로 인식되는 것을 비판한다. 구체적으로 교과이론, 교육학, 수업 방법론 중심인 교대 교육과정을 보완할 실습이 사대에서는 4주, 교대에서는 10주에 그쳐, 교과지식을 실제 수업 환경에서 적용하고, 아동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증진하기에는 실습기간이 너무 짧아 전문가로서 훈련기간이 부족하다고 비판한다.

이는 의사의 경우 전문의가 되는데 대학을 졸업하고도 오랜 기간의 실무 실습의 과정을 거치고 있고, 법관이 나 변호사가 되는 데 있어서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도 실무실습을 포함하여 2년간 사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는데 교사는 턱없이 실무로서 업무를 파악할 기간이 짧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실무기간의 부족은 수습교사제가 실시되어야 하는 강한 이유가 된다. 즉, 교사

로서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고, 교사 자격증을 습득하기 전에 짧은 실습기간을 보완하여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향상하여 전문가로서 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수습교사제가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름대로 의미 있는 진단이다.

선별과 평가의 기법만 발달해온 현실

그러나 보다 질 높은 교사가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한다는 수습교사제가 왜 현장에서 오랫동안 비판받아 왔는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어떻게 능력을 갖춘 사람이 교사가 되기를 희망하도록 하면서,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계발해 나가는 과정에 중점을 두지 않는다. 교대와 사대 입학, 양성기관 평가, 강화된 임용고사, 임용고사 후 성과급을 보면 능력 있는 교사로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매 단계마다 강화된 선별과 평가의 기법만이 발달하게 된다. 심지어 4년이라는 양성기관을 통해 길러져야 할 역량을 단기간의 시험인 임용

고사를 강화하여 교사를 선발하기 위한 평가모델을 구체화하게 되면, 임용고사를 준비하느라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이 황폐화된다. 임용고사 이후에도 교사로서 성장하기 위한 노력보다 합격을 위한 지표나 성과관리에 치중하게 되며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각 단계가 서로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런데 전문가로서 교사의 성장이 아니라 매 단계 평가의 강화를 통한 선별방식은 교사전문성의 대부분이 언어로 표상된 가시적인 지식들이 어려운 암묵치(Tacit Knowledge)로 이루어져 있다는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교사의 교과에 대한 내용 지식, 아동에 대한 이해 등은 분석될 수 있는 지식과 분석될 수 없는 것들이 혼합되어 전체를 이루기 때문에 언어로 표상될 수 있는 부분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전체적으로는 분석되지 않는 총체성(an unanalyzed totality)을 이루고 있다. 이는 교육행위에서 교사의 탁월한 성과를 내는 것은 명시적으로 가르칠 수도 없고 많

은 경우에 언어로 표현되기도 어렵기 때문에 유형화 역시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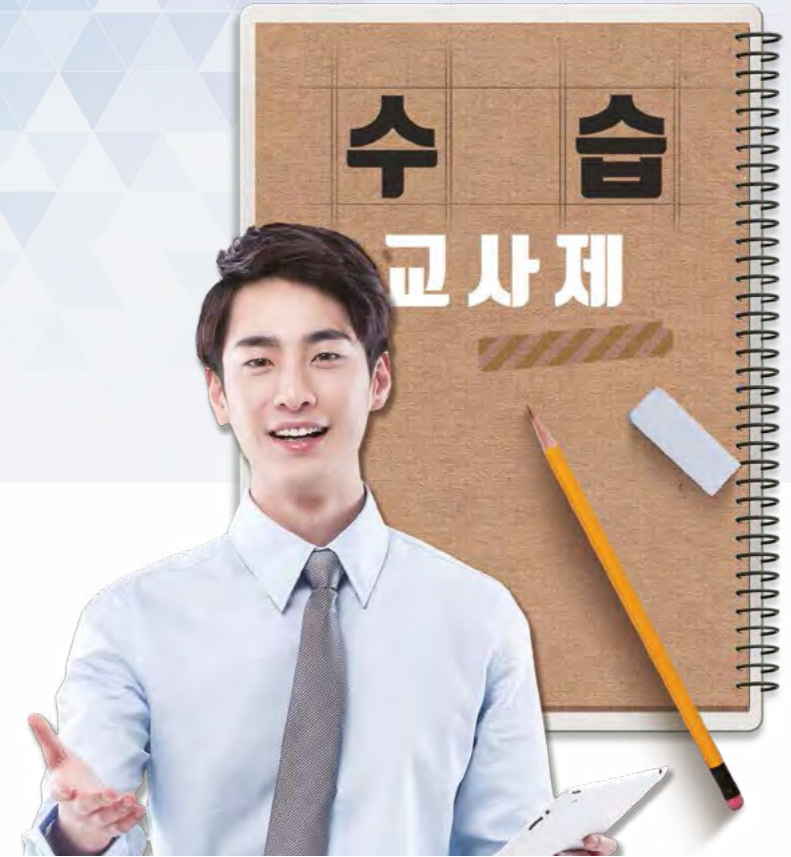
교사의 전문성을 저해하는 요인

마지막으로 사회가 교사에게 너무 많은 책임을 부과하는 것에 반해, 학부모들이 예전처럼 교사를 인정해주지 않고, 신입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사교육 문제를 공교육의 질 낮은 수준 때문이라고 연결시키는 것은 교사의 전문적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접근은 교사들의 교육과정에 대한 자율성을 제한하며 교육을 입시 중심으로 흐르게 하고, 교사의 전문적 성장을 지원하는 것보다 제약하게 된다. 또한 교사의 전문적 성장을 개인의 자기계발 문제로 바라보면서 학부모, 학

생 그리고 교사의 관계를 소비자, 공급자의 관계로 만들어 교사의 자기 효능감을 끊임없이 떨어뜨리고, 교사의 전문적 성장을 제약하는 현상이 계속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수습교사제를 실시할 것인가? 실시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논쟁을 넘어서서 좋은 교사의 선별이 아닌 양성과정, 임용, 현직교사로서 연수라는 전 과정에서 교사를 좋은 교사로서 성장시킬 것인가? 하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교육의 문제는 임용고사를 통해 질 좋은 교사를 선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선별장치가 서로를 방해하면서 교사의 생애에 걸친 전문가로서의 성장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㉞



보상과 벌, 학급에 꼭 필요할까요?

학급구성원 모두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학급규칙과 약속, 적절한 제재는 교실에 안정과 질서를 가져다줍니다. 이때의 규칙은 학급구성원의 합의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하고, 제재를 가하는 수단 역시 아이를 부끄럽게 하거나 속상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잘못된 행동에 책임을 느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보상과 벌,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첫 번째.

학급규칙은 절차적으로도
내용으로도 정당해야 해요.

규칙은 절차적으로 정당해야 하고, 내용 또한 정당해야 합니다. 헌법학에서는 이를 각각 절차적 정당성, 실체적 정당성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학급에서 학생들이 정하는 규칙 역시 합의라는 절차를 거쳤다는 것만으로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인 내용 역시 정당해야 하지요. 이때 정당함의 기준은 인간존엄입니다.

이들테면 학생들이 학급회의에서 엉덩이로 이름 쓰기, 남학생인데 고무줄로 머리카락 묶어놓기, 양말 입에 물고 돌아다니기 등을 정했다고 해서 그것이 규칙으로써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이 아무리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인격을 모독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규칙은 교실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인간은 존엄하다는 것을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 학생들은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체벌은 안 돼요

20여 년 전 제가 처음 교사가 됐을 때는 어느 정도의 체벌이 용인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심지어 학부모가 “우리 아이는 때려서라도 가르쳐주세요.”라고 요구할 정도였죠. 숙제를 안 해온 아이의 손바닥을 때리면 담임이 열정이 많아서 열심히 가르치려 한다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한 대만 때려도 숙제를 해왔지만 다음엔 세 대, 네 대를 때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때려서도 안 된다면 그 교실에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미 그 교실은 교사의 통제를 벗어난 상태겠지요.

체벌은 교사가 할 수 있는 가장 하수(下手)의 방법입니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실에서는 교사가 큰 소리로 야단하거나 벌을 주면서 화내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체계적인 학급 운영을 고민하는 게 체벌보다 더 효과적인 일 것입니다.

세 번째.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달성해가도록 하는 항상점수

항상점수제는 스스로 정한 목표에 도달할 때 점수를 매기게 하는 제도입니다. 저는 학생들이 스스로 정한 목표를 기록해두고, 항상 점수를 기록해서 자신이 목표로 했던 것을 넘어설 정도의 성취를 보이는 학생에게는 책을 선물하거나 서점에 같이 가서 책을 골라주었습니다.

다음은 교실에서 운영했던 항상점수표입니다. 기준은 학생들과 협의를 거쳐 정했습니다.

<진달래의 수학 항상점수>

*0~3점 향상되면 1점, 4~5점 향상되면 2점, 5점 이상 향상되면 3점. 만점인 경우 5점. 만점을 유지할 경우 2점, 자신의 목표 점수보다 내려갈 경우 -2점.

날짜	점수	향상 정도	항상점수
5월 7일	85점		
5월 17일	88점	3점	1점
6월 4일	84점	-4점	-2점

학급 전체가 약속을 잘 지키면 학급 전체가 함께 공놀이하기, 무서운 이야기 들려주기 같은 물질적이지 않은 보상을 했습니다. 칭찬통장이나 칭찬마일리지도 적용해보았지만 그보다는 개인별로 목표치를 정하고 노력하는 형태의 항상점수판을 활용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었습니다.

마법의 주문.

“선생님은 널 믿어.”

아이들은 안정적인 교실을 원합니다. 그러나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교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아이들이 먼저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의 행동을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학급구성원 모두가 함께 정한 약속을 지켜야 하고, 행동에 책임지는 태도가 내면화되어야 하지요.

아이와 교사의 관계가 따뜻하게 깊어지면 아이들은 교사가 원하는 행동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교사도 관대하고 포용적인 모습으로 실수를 용서하고 이해해주려 애쓴다면 학급은 평화로운 분위기가 정착되지요.

잘못한 아이를 언제까지나 껄뻐하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 선생님은 널 믿어.”, 잘 한 아이에게는 “잘 했어. 선생님은 네가 잘 해낼 거라고 믿었어.”라고 말해주세요. 학생들은 자신을 사랑해주고 아끼는 이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을 하지 않는답니다. ㉞

지난호 독자리뷰

김상근의 행복한 교육 편지를 읽고

'공평무사한 봄빛처럼 정의로운 교육'은 교육 현실에 작은 희망을 던져줍니다. 행복한 편지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에서는 약자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공교육이 바로 서야 합니다. 따스한 봄볕이 공평하게 골고루 비추듯이 어느 누구 하나 소외되는 일이 없이 저마다의 잠재력을 키우고 펼칠 수 있는 공교육을 꿈꿔봅니다.

- 모니터단 장숙희

성폭력 없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성교육

성폭력과 관련한 문제가 새삼 권력의 문제임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성평등 사회를 지향하는 것뿐만 아니라 권력과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올바른 인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 성교육의 역할이 중요함을 느낍니다. 성교육은 행복한 인간관계를 위해 지혜를 주는 교육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 모니터단 이윤희

Event

표지이야기 '생태교육'을 키워드로 특목 튀는 재미난 사행시를 지어주세요.

다음달 5일까지 '행복한 교육(<https://happyedu.moe.go.kr>) 홈페이지 → 이벤트 참여'에 남겨주시면, 당첨되신 분께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문의 02-2271-0992



행복한 교육 웹진에서 더 다양한 교육정보를 만나보세요.

<https://happyedu.moe.go.kr>

정확한 교육정책과 학교 현장의 생생한 소식들이 가득합니다.

'행복한 교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구독을 신청하시면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문의 02-2271-0992

발행일 2018년 5월 15일
 발행처 교육부
 발행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
 편집인 대변인 임창빈
 기획총괄 홍보담당관 안순억
 교육연구사 정용주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변인실 431호
 TEL 044-203-6573

편집실

기자 이순이 한주희
 사진 김경수 이대원
 디자인 홍지화 홍수명
 마케팅 류광민

서울시 중구 퇴계로 36가길 10 세정IT빌딩
 304호 (주)전우용사촌
 TEL 02-2271-0992



공모 안내

- ❖ 공모 기간 : '18. 5. 16.(수) ~ 6. 12.(화)
- ❖ 공모 분야 및 참가 대상 : (1) 생명존중 교육자료 및 수기(UCC/웹툰/인포그래픽/자살고민 극복 수기) : 학생(초·중·고재학생), 일반인(만 19세 이상 모든 국민)
 ※ UCC/웹툰/인포그래픽 3개 분야는 개인 및 팀 참가 가능(팀 참가 시 3인 이내 구성)
 (2) 학생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 운영 우수사례: 교육(지원)청 및 소속 기관, 각급 학교의 학생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업무담당자

응모 방법

- ❖ 제출물 : 출품작품 및 관련서류
- ❖ 제출처 및 방법 : 학생건강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공모전 배너 클릭)
 - 학생정신건강정보센터 홈페이지 : www.schoolhealth.kr
 - 단, 학생 응모자의 경우 소속 학교의 장이 관련서류를 교육부장관(학생건강정책과장)에게 별도 공문 제출

심사계획 및 발표

- ❖ 심사 방법 : 관련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 1차 심사 : '18. 6. 14.(목) ~ 6. 15.(금) ※ 기간 내 서면 심사
- ❖ 최종 심사 : '18. 6. 18.(월) ~ 6. 20.(수) ※ 기간 내 작품 심사
- ❖ 결과 통보 : '18. 6. 21.(목), 13:00
 - 학생건강정보센터 홈페이지(www.schoolhealth.kr) 공지 및 개별통보(전화, e-mail), 학생은 소속 학교로 공문 통보

응모 과제 및 규격

부문	과제	제출 규격 및 형식
UCC	▶ 생명존중 및 학생자살예방 실천 문화 등 - 자살예방을 위한 자신 또는 타인 배려, 생명존중 관련 행동이나 주제를 영상으로 표현, 노래* 활용 가능(3분~5분)	▶ 디지털 기기 및 모바일로 촬영한 영상 - 플래시, 애니메이션 등 모든 형태 가능 - 2~5분 이내의 wmv, mp4 파일 등 - 해상도(640×480픽셀 이상) - 용량(300mb이내) ※ 동영상 시작 화면에 '작품제목', 끝 화면에 BGM 출처 반드시 명시
웹툰	▶ 생명존중 및 학생자살예방 관련 행동이나 주제를 만화로 표현	▶ 규격 : 8컷 이상의 완결된 스토리 - (가로) 650픽셀이상, (세로) 제한 없음 ▶ 형식 : jpg 파일 및 원본(ai, psd 등 파일)
인포그래픽	▶ 생명존중 및 학생자살예방을 잘 표현하고, 관심과 배려를 함축하는 참신하고 세련된 디자인 - 학생 눈높이에서 친근감·신뢰감 등을 줄 수 있는 표현	▶ 규격 : A4(210×297) ▶ 형식 : jpg 파일 및 원본(ai, psd 등 파일) ※ 디자인 구성, 특징 및 의미에 대한 상세 설명 필수
생명사랑 수기	▶ 자살고민 해결방법 및 극복 사례 수기 - 자신 또는 주변의 도움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을 극복하였거나 도움을 준 사례	▶ A4 용지 2~5쪽 내외 - 글씨체(휴먼명조) - 글씨크기: 제목 24p / 본문 12P - 줄간격: 160% ▶ 형식 : hwp(한글 2007버전 이상)
자살예방 우수사례	▶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사후관리, 정신건강 및 생명존중 교육, 교원·학부모 연수 등 학생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을 위한 현장(또는 정책) 우수사례	▶ A4 용지 10매 내외 - 글씨체(휴먼명조) - 글씨크기: 제목 24p / 본문 12P - 줄간격: 160% ▶ 형식 : hwp(한글 2007버전 이상)

시상 내역

구분	대상	최우수	우수
UCC	장관상 - 일반 1명(상금 30만원) - 학생·지도교사 각1명	장관상 - 일반 1명(상금 20만원) - 학생 1명	장관상 - 일반 1명(상금 10만원) - 학생 1명
	웹툰	장관상 - 일반 1명(상금 30만원) - 학생·지도교사 각1명	장관상 - 일반 1명(상금 20만원) - 학생 1명
인포그래픽	장관상 - 일반 1명(상금 30만원) - 학생·지도교사 각1명	장관상 - 일반 1명(상금 20만원) - 학생 1명	장관상 - 일반 1명(상금 10만원) - 학생 1명
	생명사랑 수기	장관상 - 일반 1명(상금 30만원) - 학생·지도교사 각1명	장관상 - 일반 1명(상금 20만원) - 학생 1명
자살예방 우수사례	장관상 - 우수 교직원 1명	장관상 - 우수 교직원 1명	장관상 - 우수 교직원 1명

주최 교육부 주관 한국교육환경보호원

